

日本 學生運動의 變遷과 極左暴力集團의 發生

金 重 謙 *

目 次	
제 1 장 일본의 학생운동	3 . 트로츠키즘의 變容과 학생 운동에의 浸透
1 . 학생운동을 보는 視角	
2 . 학생운동의 起源과 變遷	4 . 極左暴力集團과 일본 공산당의 差異
제 2 장 極左暴力集團의 발생배경과 성격	제 3 장 極左暴力集團의 실태
1 . 사상적 2대 直接原因	1 . 용어의 정의와 집단의 規模
2 . 트로츠키즘에의 경사와 極左暴力集團의 발생	2 . 極左暴力集團의 變遷과정

第 1 章 日本의 學生運動

1 . 學生運動을 보는 視覺

일본에 있어서 ‘學生運動’¹⁾이란 “학생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

* 치안본부 총경

1) 柏永哲彦 編, 『警察基本用語集 ① 警備・公安警察』(東京:立花書房, 1984) pp.68 ~ 69.

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組織的으로 집회, 데모, 집단고섭, 서명운동, 선전활동 등을 행하는 운동을 말한다”고 定義하면서 “最近의 학생운동에는 다음과 같은 특질이 보여진다”고 해설을 붙이고 있다.

즉 “첫째는 左翼 諸勢力의 影響을 받아 본래의 자치회²⁾ 활동의 테두리를 넘어선 정치투쟁의 일환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하고 있다.

둘째는, 악질, 과격한 행동에 치우치기 쉽고 일부 학생은 極左暴力集團과一體가 되어 흉악한 犯罪를 敢行하고 있다.

셋째는, 학생운동이 한 대학, 한 지역만의 투쟁에 그치지 아니하고 全國的 規模의 鬭爭으로 발전하기 쉽다”고 하여 일본 학생운동을 이념지향적·폭력투쟁적인 極左暴力集團의 活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과 성향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에만 한정된 일본 학생운동의 특징이 아니라 명치유신 이후 제 2차 세계대전시까지에도 나타났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치적인 운동으로서 政治性을 띤 理念志向的 活動이었다는 점은 일관된 유일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學生運動의 起源과 變遷

가. 新教育制度가 養成한 學生운동

일본의 학생운동은 제 1차 세계대전 후 활발해진 노동운동과 함께 성장하였으나 그 起源은 명치시대로부터 비롯되며 近代 教育制度의 導入으로 싹이 텄다.

일본은 1868년 명치유신에 이어 1890년까지 약 20년간 일련의 改革을 단행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教育制度의 改革은 도쿠가와시대의 기존 교육역량을 기반으로

2) 제 2차 세계대전 후 대학, 舊制 高等學校의 각 학부에 학생자치활동 기구로 설치되어 학내외 학생활동의 모체가 되었으며 그 聯合體인 「전 일본학생 자치회 총연합」(소위 全學連)이 일본 공산당의 학생조직으로서 1948년 9월 결성되었다.

크게 발전하여 서구사상을 섭취한 신진엘리트를 대거 양성하였다.³⁾

즉, 1871년 문부성을 설치하고 1872년 教育基本憲章을 宣布하면서 1873년 미국 러거스 대학(Rutgers University)의 데이비드 머레이(David Murray) 博士를 문부성 고문으로 초청하여 그 자문을 받아 近代 學校制度를 실시하였다.

德川막부시대에 교육에 힘써 그 말기에는 일본 남자의 40%내지 50% 가량이 글을 읽을 수 있었고 1868년 당시에 약 1만 7천의 학교에 130여만의 아동들이 就學하고 있던 상황에서 사범대학과 직업학교를 세웠고 基督教 宣教師들은 초급대학 또는 종합대학이라는 새 교육기관을 세웠으며 1870년대에 약 5천여명의 외국인 고문과 교사가 고용되어 지도하고 가르쳤다.

이러한 신식학교에서 수학하고 명치유신을 전후하여 派遣된 유럽유학생에 의한 새로운 政治・經濟・思想의 影響을 받아 일본의 학생들은 일본의 문화적・사회적 革命의 遂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사상의 신봉과 행동화를 주저하지 않았다.

나. 極左暴力化 이전의 學生運動(1874 ~ 1956) 4)

(1) 자유민권운동기에서 제 2차 세계대전까지(1874 ~ 1944)

(가) 戰前 前期(1874 ~ 1917) : 민주주의 탐구

1874년 자유민권운동으로부터 1917년 러시아혁명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에는 서양에서 수입한 민권사상에 기초하여 專制와 弊政을 批判하고 근대 일본정치체제의 서장을 연 政治運動으로 評價되는 자유민권주의자들이 1878년 에국공당을 결성하였으며 社會主義思想의 影響을 받아 1882년 동양사회당, 1897년 노동조합 기성회, 1898년 사회주의 연구회, 1900년 사회주의협회, 1901년 사회민주당, 1906년 일본사회당이 각각 조직되었으며 한편으로는 1889년 2월 11일 명치헌법의 선포, 1890년 천황제 가족국가사상을 공식화한 교육칙어의 선포

3) 케네스 B. 파일 지음·박영신 / 박정신 옮김, 「근대 일본의 사회사」(서울: 현상과 인식, 1986), pp.103 ~ 107.

4) 魚秀永, 「現代 日本政治論」(서울: 法文社, 1989), pp.190 ~ 193.

포가 있었다.⁵⁾

이와 같이 19세기로부터 20세기로 세기가 바뀌는 1900년에 들어서면서 유럽의 社會主義가 일본의 급진적 지식인, 학생과 기술노동자에게 급속히 浸透・擴散되었으며 일본정부는 1900년 治安維持法으로 不法化시켰으나 젊은 급진층은 정치에 더 관심을 갖고 기존 정치체제를 暴力的 方法으로라도 고치고자 하였으며 합법적 활동이 봉쇄되자 1903년 주간 平民新聞을 創刊하여 創刊號에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완역, 게재하는 등 교육으로 그 방향을 돌렸으며 이것마저 廢刊되자 좌절 속에서 무정부주의 또는 폭력운동으로 나가게 되었다.

한편 학생운동은 早稻田大學 社會學會를 중심으로 한 社研(사회과학 연구그룹)에 의하여 사회주의를 연구하고 민주주의 내지는 휴머니즘을 탐구하면서 반전운동을 전개하였다.

(나) 戰前 後期(1919 ~ 1944) : 공산주의 탐구

이 시기는 1914년부터 1918년까지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른바 大正民主主義(1918 ~ 1932)가 그 꽃을 피우던 때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는 무렵까지이다.

명치유신 이후의 義務敎育과 産業化에 의하여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일반 평민의 개안이 이루어지고 러시아혁명의 성공에 고무되어 제1차 세계대전후 급성장한 학생운동은 社會・共產黨의 로선에 따르면서 자본주의의 모순과 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개혁을 이념적 차원에서 혁명적 요소를 도입하여 이루고자 하였다.

1918년부터 1922년까지 대학에서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인기를 끌었으며 1922년 일본 공산당의 創立⁶⁾으로 일본의 學生運動은 일본 공산당의 청년부조직

5) 現代 日本研究會編, 「現代日本の 革新勢力」(서울: 法文社, 1990), p.76.

6) 일본 공산당(Nihon Kyosan To 혹은 Japan Communist Party : 약칭 JSP)은 1922년 7월 15일 德田球一, 高瀬清 등을 중심으로 좌익진영의 중진인 土界, 山川의과 高津, 荒畑寒村, 佐野學 등이 동경 蕪布의 高瀬清의 집에 모여 비밀리에 결성하였다. 여기에서 채택된 規約(暫定)을 高瀬清등이 1922년 11월 코민테른 제4회 대회에 보고하여 「코민테른 일본국지부 일

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을 탐구하였으나 1925년 治安維持法에 의하여 점차 약화되었고 1920년대 말에는 동경제국대학 학생운동의 主軸이 되었던 新人會마저 解散되어 이후 학생운동은 지하로 스며들게 되었다.

(2) 제 2 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 공산당의 전술전환 전까지(1945 ~ 1956)

(가) 戰後 1期(1945 ~ 1947) : 학원 민주화 투쟁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전쟁 전의 성향이 지속되어 학생운동은 전차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民族主義的・日本中心的 性向, 獨占資本主義를 타도하려는 마르크스적 세계관과 급진적 방법에 입각한 투쟁적 성향을 띄고 에스컬레이트 되어 갔다.

이 시기에는 각 대학의 학생자치회가 그 機能을 完全히 發揮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원 민주화 투쟁에 역점을 두어 대학 자치체도의 정비와 조직, 大學運營에 있어서의 학생의견의 반영, 군국주의적 교수의 추방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나) 戰後 2期(1948 ~ 1950) : 학원 자유투쟁

이 시기에는 학생자치회를 모체로 1948년 9월에 결성된 全學連(전일본 학생자치회 총연합회 약칭)이 주체가 되어 學生運動을 主導하였다.

이 全學連은 東京大學, 早稻田大學, 京都大學 등이 그 지도력을 장악하였으며 전학련 지도자들은 일본 공산당의 影響下에서 그 지도를 받았다.

학원자유투쟁에 중점을 두어 전국적 규모의 학생대모가 본격화되었으며 1948년 8월 6일 수업료 3배 인상과 大學理事會案(대학관리법안) 反對 전국투쟁이 일어났고 1950년 7월 이른바 赤色追放(Red Purge)⁷⁾에 따른 赤色教授 追放에 반

본 공산당]으로 정식 승인을 받게되어 1922년 7월 15일을 일본 공산당 創立日로 하고 있다.

7) 赤色追放이란 1950년 총평(일본 노동조합 총평의회의 약칭)의 결성과 더불어 맥아더 사령부의 지시로 각급 직장에서 공산당원과 그 동조자를 내쫓은 것으로서 일본 공산당과 좌익에게 타격을 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대투쟁이 전개되었다.

대하여 1950년 10월 전국적 규모의 데모를 전개하여 早稻田大學, 京都大學에서 학생데모대와 警察이 일대충돌하여 赤色追放計劃을 저지시키기도 하였다.

(대) 戰後 3期(1951~1956): 정치·외교투쟁

학생운동의 중심이 학원민주화투쟁, 학원자유투쟁에서 비교육분야인 정치·외교로 전환된 시기이다.

당시 일본은 강화조약의 체결, 안보체제의 구축 등 일련의 對美關聯問題를 해결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으며 학내문제를 일단 정리한 학생운동의 관심이 일본 공산당 및 일본 사회당⁸⁾의 정강과 정책에 따라 —— 또는 일치하여 —— 평화조약, 미일 강화 및 안보조약(1951년)⁹⁾, 미일 행정협정(1952년)¹⁰⁾, 미일 상호 방위원조협정(1954년)¹¹⁾ 체결과 관련한 반대데모를 비롯하여 일본의 저무장을 위한 헌법의 修正과 徵兵制度의 復活 및 자위대 증강이라는 政治的 爭點에 반대하는 항의형 학생운동이 주류를 이루었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破壞活動防止法(1952년)¹²⁾ 및 教育3法¹³⁾ 반대투쟁도 건

8) 일본 사회당(Japan Socialist Party)은 1945년 1월 구 부산정당 재파를 규합하여 片山哲을 서기장으로 결성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다.

9) 대일 강화(평화)조약의 정식명칭은 「일본국과의 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으로서 1951년 9월 8일 일미안전보장조약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에서 같이 조인되어 샌프란체스코체제라고도 한다.

10) 일미행정협정은 1951년의 일미안전보장조약의 후속조치로서 1952년 2월 28일 체결되었다.

11) 일미간의 상호협력과 안전보장을 위한 조약은 1951년의 일미안전보장조약에 대신하여 1960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조인되었으며 그 후속조치로서 행정협정(Japan-United States Administrative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12) 과방법(과파활동방지법의 약자)은 폭력주의적 과파활동이라는 행정상 관념을 설정하여 동 활동을 행한 단체의 해산, 단치원에 대한 게재, 유인불등의 배포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으로 1952년 제정되었다.

13) 임시교육제도 심의회 설치법안, 지방교육행정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교과서 법안을 말한다.

〈圖 1〉 일본 학생운동의 변천 : 1874 ~ 1956

시대구분	행동화 여건미비·탐구위주 전개	실천적 투쟁화·항의 및 반대행위주·극좌폭력화 이전	극좌 폭력화
기간	2 차대전전 전기 1874 ~ 1917	2 차대전전 후기 1918 ~ 1944	2 차대전후 1기 1945 ~ 1947
성격	사회주의 연구 및 민 주주의·휴머니즘 탐 구, 반전운동 전개	러시아 혁명에 고무 되어 공산주의 탐구 및 혁명적 요소 도입, 이념보급 전파에 노 력, 치안유지범으로 지하화	대학자치제도 정비· 조직, 대학운영에의 참여, 제국주의적교 수추방 등 학원민주 화 투쟁전개
주도	조도전대학 사회학 회 중심, 사회과학 연구그룹	일본 공산당 청년부 조직 중심, 동경제대 신인회 주축	일본 공산당 청년단 체 민청이 주도한 전학련
		2 차대전후 2기 1948 ~ 1950	2 차대전후 3기 1951 ~ 1956
		수업료 인상 및 대학 관리법 반대, 적색교 수추방 반대 등 전 국적규모의 데모를 진개하는 학원자유 투쟁전개	학내문제 투쟁에서 비교육분야의 문제 로 중심이 이동한 정치·외교투쟁전개

학생운동의 이념성·정치성·실천적 투쟁성

第2章 極左暴力集團의 發生背景과 性格

1. 사상적 2대 直接原因 - 일본 공산당의 전술전환과 후르시초프로선의 確立

極左暴力集團이 發生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國際共產主義運動과 關聯한 ①일본 공산당의 전술 전환 ②소련공산당 제 20 회 당대회의 후르시초프로선 確立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¹⁴⁾

가. 일본공산당의 전술 전환

(1) 平和革命論의 제창

1946년 1월 16년만의 亡命 끝에 중국으로부터 歸國한 일본공산당 지도자 野坂參三은 미군 점령 하의 일본에 있어서도 ‘平和革命’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1946년 2월에 개최된 제 5 회 당대회에서 ‘平和革命論’을 제창하고 ‘사랑받는 공산당’(The Lovable Party)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組織活動을 전개하였다.¹⁵⁾

(2) 코민포름 및 중국의 평화로선 비판

그러나 1950년 1월 6일자 코민포름¹⁶⁾ 기관지 「항구평화와 인민민주주의를 위하여」 제 1 호는 ‘일본의 정세에 관하여’라는 論評을 통하여 “野坂의 이론은 일

14) 田代則春, 「日本共產黨の變遷と過激派集團の理論と實踐」(東京:立花書房, 1987), pp.4~6.

15) 사랑받는 공산당(The Lovable Party)이란 슬로건은 제 2 차 세계대전 후 16년간의 중국당명생활에서 歸國한 野坂參三(Nosaka Sanzo)이 평화혁명로선을 주장하고 그 슬로건으로 내건 것이다.

16) 코민포름(Cominform:The 3rd International)은 1947년 유럽 9개국 共產黨 代表가 “제당간의 經驗의 교류와 必要한 경우에는 상호동의와 활동조정”을 목적으로 창설한 「공산당 및 노동자당 정보국」을 말하며 그 약칭이 코민포름이다.

1950년 1월 코민포름 기관지는 ‘일본의 정세에 관하여’라는 제하의 기사로 일본공산당의 平和革命論을 비판한 바 있으며 1953년 3월 스탈린사후 후르시초프가 집권한 다음 1953년 4월 해산하였다.

본계국주의 점령자 미화의 이론이고 아메리카제국주의 상찬의 이론이며 마르크스·레닌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관련도 없는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1950년 1월 17일자 「北京人民日報」도 ‘일본인민 해방의 길’이라는 사실을 통하여 코민포름기관지에 호응하여 일본공산당의 태도를 비난하였다.

(3) 批判의 수용과 暴力鬪爭의 전개

이에 따라 국제공산주의운동에의 추종성이 강한 일본공산당은 1951년 2월 제 4회 全國協義會(4全協)에서 국제파와 주류파의 論爭¹⁷⁾을 거쳐 위의 비판을 받아들여 1951년 10월 제 5회 전국협의회(5全協)에서 군사방침이라고 불리워지는 ‘51년 강령’¹⁸⁾을 결의하여 그 후 무장행동강령에 의한 中核自衛隊·山村工作隊 戰術을 전개하고 화염병투쟁 및 게리라전술을 구사하여 大須 소요사건, 세무서 방화사건, 新宿派出所 등 습격사건 등을 연이어 일으켰다.

(4) 暴力鬪爭의 비판과 평화로선의 전환

그 후 韓國戰爭도 휴전이 되고 1953년 3월에는 스탈린이 사망하고 이어 1953년 10월에는 일본공산당 지도자의 한 사람인 德田球一이 사망하게 되어 일본공산당은 1955년 7월 제 6회 전국협의회(6全協)¹⁹⁾에서 그때까지의 군사방침을 極

17) 1950년 6월 25일의 韓國戰爭의 발발에 즈음하여 일본공산당은 “革命的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믿고 비합법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하활동 태세를 정비함과 더불어 1950년 10월에는 ‘힘에는 힘을 가지고 투쟁한다’고 하는 「무장투쟁」방침을 제시했다. 그리하여 非合法組織體制確立을 위하여 비밀리에 제 4회 전국협의회(4全協)을 열고 「군사방침」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中核自衛隊 및 유격행동대에 의한 暴力主義的 戰術을 추진하였다.

18) 일본공산당은 1951년 10월 5全協을 개최하여 「일본공산당의 당면요구」라는 「51년 강령」과 「우리들은 무장의 준비와 행동을 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무장행동강령」(군사방침)을 결정하여 민족해방, 민주혁명과 폭력혁명을 공공연하게 주장하였다.

19) 일본공산당은 1955년 7월 6全協을 개최하여 1951년의 「51년 강령」에 기하여 무장투쟁을 하고 당조직을 비공식체제로 한 것을 「極左冒險主義」로 비판하고 다시 대중과 더불어 存在하는 共產黨 등의 평화적인 전술로 전환하였다.

左冒險主義²⁰⁾라고 批判하고 전술을 일대전환하여 다시 사랑받는 共產黨運動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나. 소련공산당 제 20회 당대회의 후르시초프로선 確立

(1) 스탈린 批判과 平和革命의 다양성 제창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 20회 당대회²¹⁾에서 후르시초프 제 1서기가 ‘非스타린化’정책을 발표하고 ‘平和革命의 多樣性’을 제창하여 당로선으로 채택하였다.

그때까지의 스탈린 독트린은 “각국 공산당에 대하여 조국 소련동맹 강화를 위하여 奉仕케 하는” 소련 중심의 ‘일국 사회주의 방식’이었으나 각국의 사정에 즉응하여 평화혁명의 다양성을 遂行하여도 좋다는, 결국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 지도로선은 잘못된 것이라고 스탈린을 批判함과 더불어 미·소의 평화공존을 전제로 한 후르시초프로선을 確立하였다.

(2) 동구폭동의 무력진압

그 후 1956년 6월 폴란드 보즈남폭동, 1956년 10월 헝가리의 임레 나지 주도하의 暴動이 소련군에 의하여 진압되고 두브체크를 중심으로 ‘평화주의에의 捷코의 길’로선을 내걸고 서구 제국에의 接近路線을 취한 치코슬로바키아 또한 1968년 소련군을 위시한 바르사바조약군에 의하여 진압되기에 이르렀다.

20) 極左冒險主義란 맹목적으로 성공에 必要한 條件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정책을 취하는 것이다.

21) 1956년 2월에 개최된 소련공산당 제 20회 黨大會에서 후르시초프는 스탈린을 비판한 후 ①平和共存을 소련대의정책의 基本原則으로 한다. ②資本主義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형태는 각국의 조건에 따라서 특히 국내전 없이 議會를 통하여 平和的으로 사회변혁을 수행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③集團指導體制로 黨을 운영한다는 路線을 確立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이 路線을 후르시초프 수정주의라고 비판하여 중·소 이념분쟁의 실마리가 되었다.

2. 트로츠키즘에의 경사와 極左暴力集團의 발생

가. 일본공산당 및 소련에 대한 不信

위와 같은 狀況에 처하여 일본의 공산주의자들 간에는 일본공산당과 소련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일어났으며 특히 학생과 청년단원의 일부는 世界革命을 主張하는 트로츠키즘에 경사되게 되었다.

나. 트로키스트연맹의 결성과 혁공동 등으로의 改稱

일본의 좌익진영에게는 절대시되고 誤謬가 없다고 믿어 왔던 스탈린이 후르시초프에 의하여 틀렸다고 비판되자 그렇다면 레닌과, 스탈린과 對立하여 國外로 도망간 트로츠키의 이론이 옳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대두하여 이를 再評價하고자 하는 기운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1957년 1월 트로츠키주의자 太田龍에 의하여 일본 최초로 트로츠키스트의 전국조직이 「일본 트로츠키스트연맹」(제4인터내셔널 일본지부 準備會)이 결성되었으며 1957년 12월 청년노동자와 학생층에의 組織擴大를 目標로 「일본 혁명적 共產主義者同盟」(革共同)으로 개칭하게 되었으며 이로서 極左暴力集團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3. 트로츠키즘의 變容과 학생운동에의 浸透

일본공산당 중앙과 결별한 학생 당원들은 일본공산당의 6전협로선과 후르시초프로선에 대항하여 과격한 階級鬭爭을 展開하게 되고 그 결과 트로츠키주의의 影響을 상당히 받아 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가. 트로츠키주의의 骨子

트로츠키즘이란 레닌의 동지로서 레닌과 더불어 러시아혁명을 成功시켰으나 스탈린과의 政權競争에서 敗北하여 국외추방을 당한 다음 1940년 9월 암살당한 레온 트로츠키주의 주장으로 그 骨子は ‘영구혁명론’, ‘노동자국가론’, ‘세계혁명론’이라 할 수 있다.

2. 트로츠키즘에의 경사와 極左暴力集團의 발생

가. 일본공산당 및 소련에 대한 不信

위와 같은 狀況에 처하여 일본의 공산주의자들 간에는 일본공산당과 소련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일어났으며 특히 학생과 청년단원의 일부는 世界革命을 主張하는 트로츠키즘에 경사되게 되었다.

나. 트로키스트연맹의 결성과 혁공동 등으로의 改稱

일본의 좌익진영에게는 절대시되고 誤謬가 없다고 믿어 왔던 스탈린이 후르시초프에 의하여 틀렸다고 비판되자 그렇다면 레닌과, 스탈린과 對立하여 國外로 도망간 트로츠키의 이론이 옳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대두하여 이를 再評價하고자 하는 기운이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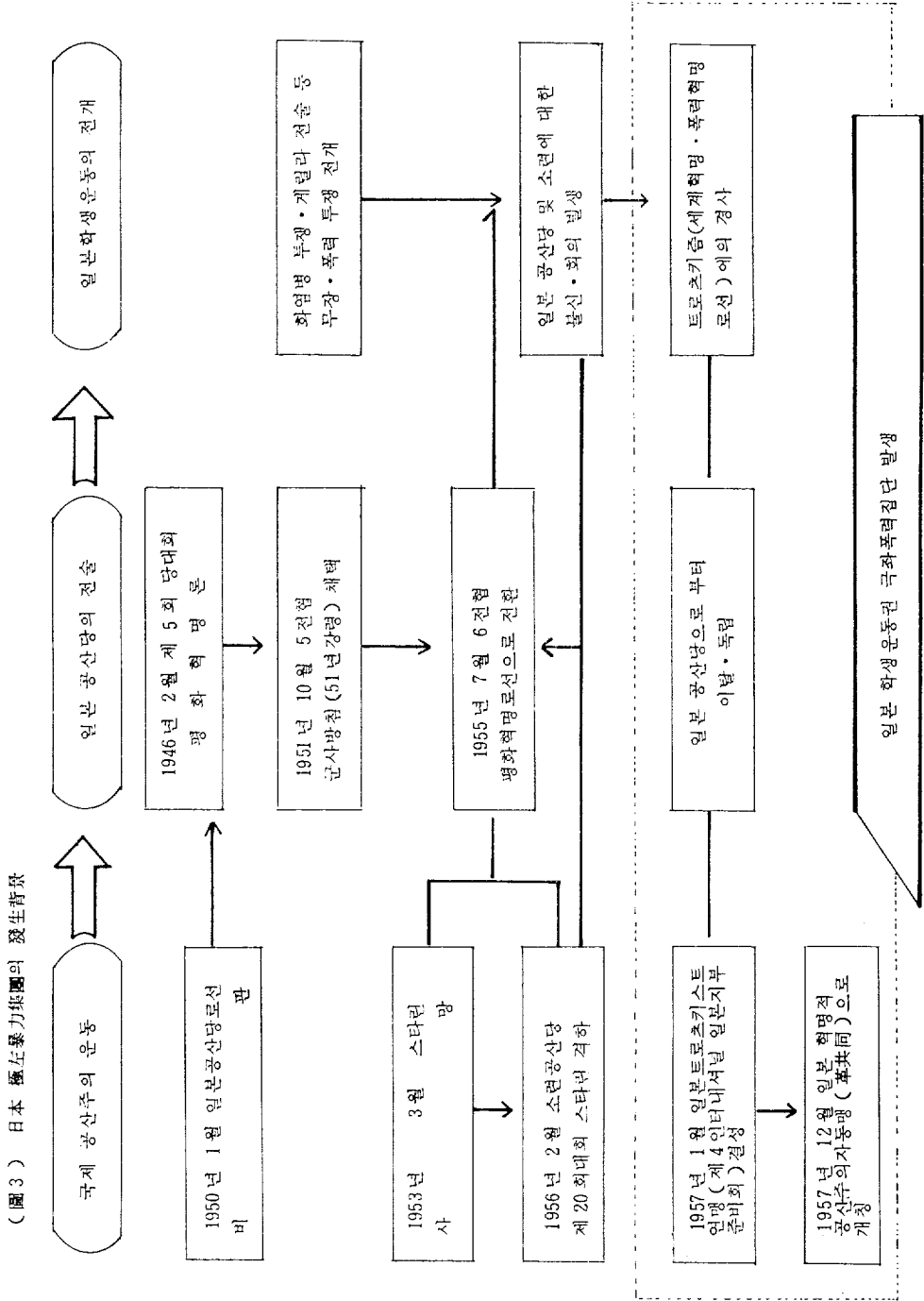
그리하여 1957년 1월 트로츠키주의자 太田龍에 의하여 일본 최초로 트로츠키스트의 전국조직이 「일본 트로츠키스트연맹」(제4인터내셔널 일본지부 準備會)이 결성되었으며 1957년 12월 청년노동자와 학생층에의 組織擴大를 目標로 「일본 혁명적 共產主義者同盟」(革共同)으로 개칭하게 되었으며 이로서 極左暴力集團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3. 트로츠키즘의 變容과 학생운동에의 浸透

일본공산당 중앙과 결별한 학생 당원들은 일본공산당의 6전협로선과 후르시초프로선에 대항하여 과격한 階級鬭爭을 展開하게 되고 그 결과 트로츠키주의의 影響을 상당히 받아 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가. 트로츠키주의의 骨子

트로츠키즘이란 레닌의 동지로서 레닌과 더불어 러시아혁명을 成功시켰으나 스탈린과의 政權競争에서 敗北하여 국외추방을 당한 다음 1940년 9월 암살당한 레온 트로츠키주의 주장으로 그 骨子は ‘영구혁명론’, ‘노동자국가론’, ‘세계혁명론’이라 할 수 있다.



(1) 영구혁명론

트로츠키는 “프로레타리아革命은 經濟적으로 성숙한 先進資本主義國家에 있어서만 성공한다”는 종래의 공식론에 대하여 제정러시아와 같은 후진각쪽이 선진국보다도 빨리 프로레타리아트가 權力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트로츠키의 展望에 의하면 브르조아민주주의혁명으로서 발아하는 後進國革命은 마르크스주의의 發展法則에 따라서 ‘농민의 지지를 받는 프로레타리아트독재’로 필연적으로 이행하고 이것이 동시에 서구선진국의 社會主義革命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또한 선진국혁명의 승리만이 후진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완수를 보장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트로츠키의 혁명도식은 後進國에서의 브르조아혁명으로부터 프로레타리아트독재를 거쳐 共產主義社會의 建設로, 선진제국에서의 사회주의혁명으로 나아가는 세계적 규모에 의한 혁명의 영구적 수행을 주창하고 특히 트로츠키의 “선진국혁명의 지원없이 社會主義는 한 국가도 실현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제 1차 세계대전후의 혁명퇴조기에 직면하여 내놓은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건설론’과 정면으로 對立되는 것이었다.

(2) 勞働者國家論

트로츠키는 소련을 ‘타락한 노동자국가’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1917년 러시아혁명에 의하여 사상 최초의 ‘노동자국가’가 된 소련은 스탈린 지배하에서 그 국가기구는 스탈리니스트관료의 지배에 의하여 타락되어 勞働者階級에 대한 관료적포악의 무기로 化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트로츠키는 제국주의에 의한 반혁명의 위기에 대하여서는 ‘노동자국가’의 방위를 호소하고 ‘勞働者國家’ 내부에 있어서는 스탈리니스트관료를 타도하여 프로레타리아 民主主義를 재생시키기 위한 政治革命의 必要性을 強調하였다.

(3) 世界革命論

‘세계혁명론’은 ‘영구혁명론’과 ‘노동자국가론’을 양 축으로 하여 형성되어 있다.

트로츠키로서는 ‘영구혁명론’의 입장에서 레닌과 더불어 제 3인터내셔널(코민포름)의 결성과 그 擴大, 그리고 러시아혁명의 수행과 이를 원호할 西歐先進國革命의 實現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스탈린의 官僚獨裁體制 確立과 ‘일국사회주의론’에 의하여 소련은 ‘타락한 노동자국가’화하고 각국의 혁명운동은 기대에 어긋나게 죽게 내버려 두었다고 주장하였다.

트로츠키의 革命路線은 제 2차 세계대전 전야의 정세에 대응하여 러시아혁명으로 부터 전 세계 선·후진(植民地, 反植民地)국을 포함한 世界革命으로 擴大하고 민족적 경계를 초월한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단결로서 세계제국주의를 타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더불어 勞動者國家에 대하여는 이것을 제국주의의 공격으로부터 방위하면서 스탈리니스트관료 타도의 政治革命을 達成한다고 하는 일원적인 ‘전 세계 영구혁명론’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테제화한 것이 ‘반제·노동자국가 옹호·스탈리니스트관료 타도’의 戰略슬로건이고 이것을 일원적으로 實踐하는 母體로서 결성된 것이 「제 4인터내셔널」이다.

나. 트로츠키즘의 變容과 일본의 動向

(1) 정통파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주장

그런데 트로츠키가 組織한 제 4인터내셔널은 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소련도 參戰하게 되는 政勢에 이르자 ‘스탈리니스트관료’와 ‘그 지배 하에 있는 노동자국가’를 분리하여 ‘勞動者國家 무조건 擁護·스탈리니스트官僚 打倒’라는 戰略슬로건을 내걸게 되었다.

이리하여 제 4인터내셔널은 첫째, 브르주아지 타도 즉, ‘반제국주의’, 둘째, 제국주의자의 공격에 대하여서는 ‘勞動者國家 무조건 擁護’, 셋째, 공산권 내부의 改革을 의미하는 ‘스탈리니스트관료 타도’의 세 가지 주장을 내세우고 이 셋을 종합한 ‘반제·노동자국가 옹호, 스탈리니스트관료 타도’의 슬로건으로 압축하였으며 이것이 現在에 이르기까지의 이른바 정통파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주장이 되어 왔다.

(2) 일본 트로츠키스트연맹의 결성²²⁾

일본 트로츠키스트운동의 선구자는 評論家 山西英一이었으며 그는 1949년부터 1952년간에 「러시아革命史」, 「中國革命論」 등을 번역, 소개하였다.

또한 그는 트로츠키의 제창에 의하여 1938년 9월 파리에서 창설된 트로츠키스트의 國際組織인 제4인터내셔널 제3회 세계대회에서 採擇된 進술에 따라 1951년 좌파 사회당 三多摩支部에 入黨하여 1953년부터 1955년에 걸쳐 三多摩를 中心으로 트로츠키스트 그룹을 형성하여 活動하면서 栗原登一(組織名 太田龍) 등 후진의 양성에 노력하였다.

1930년 초엽 일본공산당 6全協에 의한 進술 전환, 소련공산당 제20회 당대회의 스탈린비판, 헝가리 폭동사건 등 國際共產主義運動의 變革期에 직면한 단계에서 일본공산당의 청년당원 및 동조층에 큰 동요가 일고 스탈린주의에 대한 중대한 의문으로부터 트로츠키주의에 경사되는 자가 속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狀況 속에서 太田龍 등은 그러한 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던 黒田寛一과 接觸하여 시기상조라는 山西英一의 반대를 누르고 1957년 1월 일본 최초의 트로츠키스트단체인 「일본 트로츠키스트연맹(제4인터내셔널 일본지구 준비회)」를 결성하였고 1957년 12월 1일 그 명칭을 「日本 革命的 共產主義者同盟(革共同)」으로 고쳤다.

(3) 트로츠키즘의 學生運動 浸透

일본공산당으로부터 탈당한 당원을 中心으로 組織된 革共同은 이론적 연구나 선전적 활동에 그쳤으나 6·1사건 후에 조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학생운동에 그 기반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즉, 1958년 당시 全學連의 指導部는 일본공산당 산하에 있었으나 1955년 7월 일본공산당의 6全協決議에 의한 소극적 지도방침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차 1958년 5월말에 개최된 全學連 第11回 大會에서 일본공산당 측양에 충실한 대

주 22) 田代則春, 「日本共產黨の變遷と過激派集團の理論と實踐」(東京: 立花書房, 1987), pp.74 ~ 75.

의원을 배제하고 좌파만으로 全學連 指導部를 구성하였다.

이 사태를 중시한 일본공산당 중앙은 1959년 6월 1일 대회에 參席한 학생당원 약 120명을 당 본부에 모아 全學連大會 대의원그룹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회의 벽두부터 대혼란이 일어나 폭력사건으로 發展하여 소위 「6·1 사건」 또는 「6·1 일본공산당 본부 점거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후 革共同은 일본공산당 당원의 동요 등을 이용하여 활발한 오르고활동²³⁾을 벌여 많은 學生活動家의 포섭·획득에 성공하여 트로츠키즘은 學生運動에서 그 기반을 찾게되었다.

4. 極左暴力集團과 일본 공산당의 差異

가. 現狀의 規定 — 미제국주의 및 그 종속 대 일본제국주의 부활

(1) 일본공산당의 미제국주의 강점 및 종속론

일본공산당은 現在의 일본을 軍事的, 政治的, 經濟的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메리카제국주의이고 아메리카제국주의에 從屬·依存하고 있는 일본독점자본이라고 보고 일본공산당의 당면한 중심임무는 現在의 아메리카제국주의와 日本獨占資本의 지배에 반대하는 인민의 제반 투쟁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2) 極左暴力集團의 일본제국주의 부활론

極左暴力集團은 日本獨占資本勢力은 아메리카제국주의의 군사동맹에 가담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는 일방 불황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勞動者階層에 대한 수탈의 강화와 해외진출, 대중운동의 철저한 탄압을 통하여 새로운 제국주의로 부활했다고 分析하였다.

이러한 일본제국주의가 부활했다는 현상인식에 입각하여 革命의 方式은 부활한 일본제국주의를 포함한 세계의 제국주의 열강을 동시에 타도하여 社會主義社會를 實現한다는 目的으로 1단계 사회주의혁명의 실현을 지향하였다.

23) 오르고(オルグ) Organizer 의 약어로서 組織者라는 뜻이다. 未組織의 勞動者나 대중을 조직하기도 하고 노동조합의 조직을 확대·강화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의원을 배제하고 좌파만으로 全學連 指導部를 구성하였다.

이 사태를 중시한 일본공산당 중앙은 1959년 6월 1일 대회에 參席한 학생당원 약 120명을 당 본부에 모아 全學連大會 대의원그룹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회의 벽두부터 대혼란이 일어나 폭력사건으로 發展하여 소위 「6·1 사건」 또는 「6·1 일본공산당 본부 점거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후 革共同은 일본공산당 당원의 동요 등을 이용하여 활발한 오르고활동²³⁾을 벌여 많은 學生活動家의 포섭·획득에 성공하여 트로츠키즘은 學生運動에서 그 기반을 찾게되었다.

4. 極左暴力集團과 일본 공산당의 差異

가. 現狀의 規定 — 미제국주의 및 그 종속 대 일본제국주의 부활

(1) 일본공산당의 미제국주의 강점 및 종속론

일본공산당은 現在의 일본을 軍事的, 政治的, 經濟的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메리카제국주의이고 아메리카제국주의에 從屬·依存하고 있는 일본독점자본이라고 보고 일본공산당의 당면한 중심임무는 現在의 아메리카제국주의와 日本獨占資本의 지배에 반대하는 인민의 제반 투쟁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2) 極左暴力集團의 일본제국주의 부활론

極左暴力集團은 日本獨占資本勢力은 아메리카제국주의의 군사동맹에 가담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는 일방 불황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勞動者階層에 대한 수탈의 강화와 해외진출, 대중운동의 철저한 탄압을 통하여 새로운 제국주의로 부활했다고 分析하였다.

이러한 일본제국주의가 부활했다는 현상인식에 입각하여 革命의 方式은 부활한 일본제국주의를 포함한 세계의 제국주의 열강을 동시에 타도하여 社會主義社會를 實現한다는 目的으로 1단계 사회주의혁명의 실현을 지향하였다.

23) 오르고(オルグ) Organizer 의 약어로서 組織者라는 뜻이다. 未組織의 勞動者나 대중을 조직하기도 하고 노동조합의 조직을 확대·강화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일본공산당의 일본독점자본의 아메리카제국주의에의 종속·의존론에 대하여서는 日本의 기간산업에 대한 美國資本의 지배는 석유를 제외한 다른 산업에서는 보이지 않고 일본에 있어서 資本의 絶對額에 있어서도 美國資本이 점하는 比率은 적으므로 “미제국주의에 중요 경제부문이 장악되고 있다”는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뿐만 아니라 政治面에 있어서도 대미 종속을 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부활한 일본제국주의와 미제국주의의 반혁명동맹이며 “일본이 아메리카제국주의가 기도하는 侵略戰爭에 말려 들 危險”으로서의 종속성보다는 일본제국주의의 독자적인 侵略戰爭에의 危險쪽이 강하다고 보고 경제면이나 정치면에서도 일본제국주의는 부활, 자립했다는 인식에서 있다.

나. 打倒目標 — 반제(미)·반독점 對 반제·반스타린

(1) 日本共產黨의 미제국주의와 일본독점자본

1961년 7월 27일에 결정된 일본공산당 강령 가운데에 “現在 日本의 당면한 革命은 아메리카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자본의 지배, 이 두 적에 반대하는 새로운 民主主義革命, 人民民主主義革命이다”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와 일본독점자본의 ‘2개의 적’을 타도목표로 하고 ‘반제·반독점’을 그 戰略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2) 極左暴力集團의 제국주의 세계체계

세계의 제국주의·자본주의와의 대결이라는 관점에서 타도목표로서 제국주의 세계체계 타도 즉, ‘반제·반스타리니스트’를 戰略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다. 혁명 주체

(1) 일본공산당의 노동동맹

혁명을 수행하는 주체에 대하여 일본공산당은 “아메리카제국주의와 日本獨占資本의 지배에 반대하는 民族民主統一戰線은 노동자계급의 아래에 노동자·농민의 동맹을 기초로 하여 그 주위에 勤勞市民, 知識人, 婦人, 青年, 學生, 中小企業家, 평화와 조국을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모든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것”이라 하

고 있다.

즉 노동자계급을 가장 혁명적인 계급이라고 하면서도 革命에 利益을 가지고 있는 階級, 階層의 총력을 민족민주통일전선에 결집시킬 必要가 있다고 한다.

(2) 極左暴力集團의 노동자계급

極左暴力集團은 “노동자계급으로서의 공동이해 아래 포섭된 革命的·戰鬪的 勞動者, 學生, 農民, 小市民의 프로레타리아통일전선”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공산당과의 이와 같은 차이는 혁명의 전략상의 차이로부터 오는 것이고 일본공산당이 혁명의 당면목표를 평화적 수단으로 의회제도를 통하여 민주주의혁명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가 혁명에 이익을 지닌 國民 各階各層에 미치는 範圍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極左暴力集團은 暴力에 의한 社會主義革命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질적인 계 계급의 계급이해 하에서 포섭된 통일전선으로는 노동자계급을 시민계급 가운데가두는 것이 되고 진정한 프로레타리아독재는 결집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範圍를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 革命 規模 — 일국혁명 대 세계혁명

(1) 전략·수단의 2대 조류

공산주의운동의 종국적 목적은 자본주의·제국주의를 打倒하여 ‘전 세계의 共產主義革命’을 實現함에 있으나 그것을 실현하는 전략, 수단에 관하여는 歷史的으로 두개의 큰 조류가 있어 왔다.

(가) 일국혁명론

그 하나는 변전하는 國際政勢 下에서 각국의 특수한 政治, 經濟, 社會 사정이나 자본주의의 不均等한 發展을 고려하여 각국마다 혁명을 일으켜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것이 ‘일국혁명론’이다.

이는 국가마다 다른 政治, 經濟, 社會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適應하는 혁명의 길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스탈린 이래의 ‘일국사회주의혁명’의 이론이다.

(나) 세계혁명론

또 하나는 資本主義는 세계적으로 유기적인 상호관계에 있고 한 지점에서 일어난 위기는 연속적으로 세계에 파급된다는 인식으로부터 세계적으로 동시에 수행하지 않으면 革命은 實現 不可能하다는 ‘세계혁명론’이다.

이는 각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世界同時革命의 實現을 目的으로 하는 것으로서 트로츠키로 대표되는 革命理論이다.

(2) 일본공산당의 입장과 極左暴力集團의 주장

(가) 일본공산당의 일국사회주의

日本共產黨은 일국사회주의의 입장을 답습하여 왔다.

각국의 資本主義의 발달단계는 똑 같지 아니하고 不均等하며 사회주의혁명에의 조건이 성취되어 있는 國家가 있는 반면 성취되지 아니한 국가도 있다.

이와 같이 發達段階가 다른 각 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는 각각의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에 적응한 革命을 성공시켜 과도적으로는 두개의 사회체제 가운데서 각각의 國家가 資本主義로부터 이탈하는 과정을 취함으로써 결국 世界的 規模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極左暴力集團의 세계(동시)혁명론

이에 대하여 極左暴力集團은 일국혁명이어서는 아니되며 세계(동시)혁명이 아니면 아니된다고 한다.

일국의 정치위기, 경제발전, 불황 등은 다른 資本主義國家에 연쇄적으로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IMF, GATT, NATO, 안보체제 등이 現代에 있어서 資本主義 諸國의 政治的, 經濟的, 軍事的 結合關係에 있고 제국주의의 連環體系인 이상 하나의 자본주의국가에서 革命運動을 일으켜도 반드시 제국주의의 세계적 連環性에 의하여 압살되기 때문에 혁명은 일국 規模로는 성공하지 못하며 世界帝國主義體制를 打倒하는 것으로 비로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하여 그 방법로서는 제국주의의 世界的 連環의 ‘가장 약한 고리(環) — 미국의 원조로 급속히 발전한 일본, 서독 등 — 를 철저히 타도하면 그것이 연속

적인 유발을 일으켜 혁명이 세계적으로 파급한다고 트로츠키의 革命理論에 의하여 주장한다.

마. 혁명 수단 — 평화혁명 對 폭력혁명

(1) 일본공산당의 和戰兩用論

일본공산당은 혁명의 수단에 대하여 ‘平和革命’을 전면에 강력하게 내세우면서도 내외정세의 變化, 적의 동향에 따라 ‘暴力革命’의 方法도 불사하는 和戰兩用體制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자세를 明確히 내세운다.

(2) 極左暴力集團의 暴力革命論

極左暴力集團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일본공산당의 ‘平和路線’을 ‘平和共存路線’과 더불어 세계 프롤레타리아트를 배신한 스탈린주의의 현대판에 불과하고 물계급적 이론이라고 비판하고 제국주의 단계의 프롤레타리아혁명은 平和的으로 議會를 통하여 실현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무력으로 實現되는 것이라 하여 暴力革命의 보편성을 明確히 하고 있다.

바. 革命 方式 — 2 단계 대 1 단계

(1) 일본공산당의 2 단계 연속 혁명론

일본공산당의 당면투쟁은 第1段階로서 아메리카帝國主義와 그에 종속하는 일본 독점자본이라는 ‘2개의 적’을 타도하는 民主主義革命을 달성하고 第2段階로서 그것을 연속적인 社會主義革命으로 발전시키는, 일국 규모의 2 단계 혁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極左暴力集團의 1 단계 혁명론

革命의 방식은 부활한 일본제국주의도 포함한 세계의 제국주의 열강을 打倒하여 바로 社會主義社會를 實現하는 1 단계 혁명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圖 4] 일본공산당과 極左暴力集團의 차이

구 분	일 본 공 산 당	극 좌 폭 력 집 단
현상규정	미제국주의 강점 및 종속독점자본주의	일본제국주의의 부활
타도목표	미제국주의와 일본독점자본(반제·반독점)	제국주의 세계체제(반제·반스타리니스트)
혁명규모	일국 혁명론	세계 혁명론
혁명수단	평화혁명론 위주 화전양용론	폭력혁명론
혁명방식	2 단계 연속혁명론(민주주의혁명 → 사회주의 혁명)	1 단계 혁명론(사회주의 사회건설)
혁명주체	노동연맹 기초하 인민결집	노동자 계급

第 3 章 極左暴力集團의 實態

1. 용어의 정의와 집단의 規模

가. 용어의 혼용

極左暴力集團은 1957년에 탄생한 이후 30여년이 넘도록 각종 鬭爭課題를 내세우고 화염병 등에 의한 가두무장투쟁, 기업연쇄폭과 등의 폭탄투쟁, 內계바²⁴⁾ 등

24) 內계바(內ゲバ)란 내부 계바르트(內部ゲバルト)를 의미하는 약어로서 각당 파간이나 당파내에서 論理나 行動의 相異 또는 주도권 쟁탈 등 때문에 빚어지는 暴力, 實力行事를 말한다. 오래전부터 일본공산당의 비합법시대에 있어서 린치사망사건이나 學生組織內에서의 린치가 있었으나 내계바라는 용어가 나타난 것은 1968년 미항공포함 엔터프라이즈호의 佐世保 기항 저지투쟁때부터이다. 처음에는 日本共産黨系 對 反日本共産黨系 間의 내계바가 40~50%였으나 67년, 68년경부터는 반일본공산당계 간, 특히 中核派와 革마르파의 내계바가 전체의 70~80%를 점유하게 되었다.

[圖 4] 일본공산당과 極左暴力集團의 차이

구 분	일 본 공 산 당	극 좌 폭 력 집 단
현상규정	미제국주의 강점 및 종속독점자본주의	일본제국주의의 부활
타도목표	미제국주의와 일본독점자본(반제·반독점)	제국주의 세계체제(반제·반스타리니스트)
혁명규모	일국 혁명론	세계 혁명론
혁명수단	평화혁명론 위주 화전양용론	폭력혁명론
혁명방식	2 단계 연속혁명론(민주주의혁명 → 사회주의 혁명)	1 단계 혁명론(사회주의 사회건설)
혁명주체	노동연맹 기초하 인민결집	노동자 계급

第 3 章 極左暴力集團의 實態

1. 용어의 정의와 집단의 規模

가. 용어의 혼용

極左暴力集團은 1957년에 탄생한 이후 30여년이 넘도록 각종 鬭爭課題를 내세우고 화염병 등에 의한 가두무장투쟁, 기업연쇄폭과 등의 폭탄투쟁, 內계바²⁴⁾ 등

24) 內계바(內ゲバ)란 내부 계바르트(內部ゲバルト)를 의미하는 약어로서 각당 파간이나 당파내에서 論理나 行動의 相異 또는 주도권 쟁탈 등 때문에 빚어지는 暴力, 實力行事를 말한다. 오래전부터 일본공산당의 비합법시대에 있어서 린치사망사건이나 學生組織內에서의 린치가 있었으나 내계바라는 용어가 나타난 것은 1968년 미항공포함 엔터프라이즈호의 佐世保 기항 저지투쟁때부터이다. 처음에는 日本共産黨系 對 反日本共産黨系 間의 내계바가 40~50%였으나 67년, 68년경부터는 반일본공산당계 간, 특히 中核派와 革마르파의 내계바가 전체의 70~80%를 점유하게 되었다.

에 의한 過激鬭爭을 계속 擴大하여 나가고 있으나 용어 자체 및 概念에 관하여는 일치된 견해가 없는 실정이다.

‘極左暴力集團’이란 용어는 일본 학생운동권의 70년대 투쟁무렵부터 鬭爭形態가 점차 과격하여지자 일본의 警察當局이 “社會主義, 共產主義革命 등을 목표로하여 평화스러운 민주주의사회를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集團”을 지칭하여 사용하고 있으며²⁵⁾, 檢察廳, 公安조사청²⁶⁾ 등 법무성 관련기관에서는 ‘과격파’ 또는 ‘과격파집단’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²⁷⁾

본래 ‘과격파’라는 용어는 警察當局이 극좌폭력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함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일본의 매스컴에서 그들의 전술 및 행동에 착안하여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일본에서는 ‘過激派’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 용어의 概念

현재 일본에서는 동일한 실체에 대하여 ‘過激派’, ‘過激派集團’, ‘極左暴力集團’이란 용어 외에 신좌익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과격파’, ‘과격파집단’, ‘극좌폭력집단’은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실체가 동일한 것으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하여 全世界의 공산주의혁명을 實現할 目的으로 자유민주주의사회를 暴力으로 파괴하려는 集團”을 총칭하는 것이며 極左暴力集團이라 名稱을 가진 단체나 연합조직은 없다.²⁸⁾

25) 日本警察廳의 「경찰백서」를 비롯한 각종 간행물도 용어의 정의를 概念지은 경우는 없으며 “極左暴力集團은……集團이고”의 形式으로 지칭할 뿐이고 일본의 유력한 出版社이자 경찰관계서적 전문출판사인 立花書房 發行의 「경찰기본용어집①」 경비·공안경찰(1984)에도 항목자체가 없다.

26) 公安조사청(公安調査廳)은 파괴활동방지법을 施行하기 위하여 설치된 法務省 산하 기관이다.

27) 過激派集團の概要(동경, 公安조사청, 1982)

28) 日本警察廳 警察白書, 公安조사청 과격파집단의 개요를 비롯하여 現代用語의 基礎知識 1987·1990년판, 立花書房의 警察公論 1983년 3월호, 田代則春의 最近における 過激派集團の實體と その動向을 參考한 것이다.

따라서 極左暴力集團은 ①발생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 일본공산당 등 기성좌익으로부터 분리·독립하였고 ②이념면에 있어서 日本의 既成左翼과 尖銳하게 대립하면서 소련, 중공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국가에도 반기를 들고 있으며 ③방법면에 있어서 暴力革命을 絶對視하여 대 국가권력투쟁을 벌이고 ④일부 과격파집단 간에 과격한 暴力鬭爭을 반복하는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²⁹⁾

일본 경찰당국이 굳이 ‘極左’라는 표현을 앞에 붙이고 있는 것은 그들의 뿌리가 일본공산당이나 일본공산당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점에 착안하여 日本共産黨과 대비키 위한 뜻이 함축되어 있고 또한 ‘過激’ 대신에 ‘暴力’으로 표현한 것은 그들의 투쟁양상이 파괴적·폭력적인 점을 용어 그 자체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極左暴力集團이 일본공산당의 노선에 반발하여 獨立하여 나왔기 때문에 ‘反日共’ 또는 일본공산당본부가 위치한 곳이 代代木이기 때문에 ‘反代代木系’라고도 한다.

한편 ‘신좌익’이라는 用語는 極左暴力集團의 전술 및 행동에 일정한 존재가치를 肯定하는 입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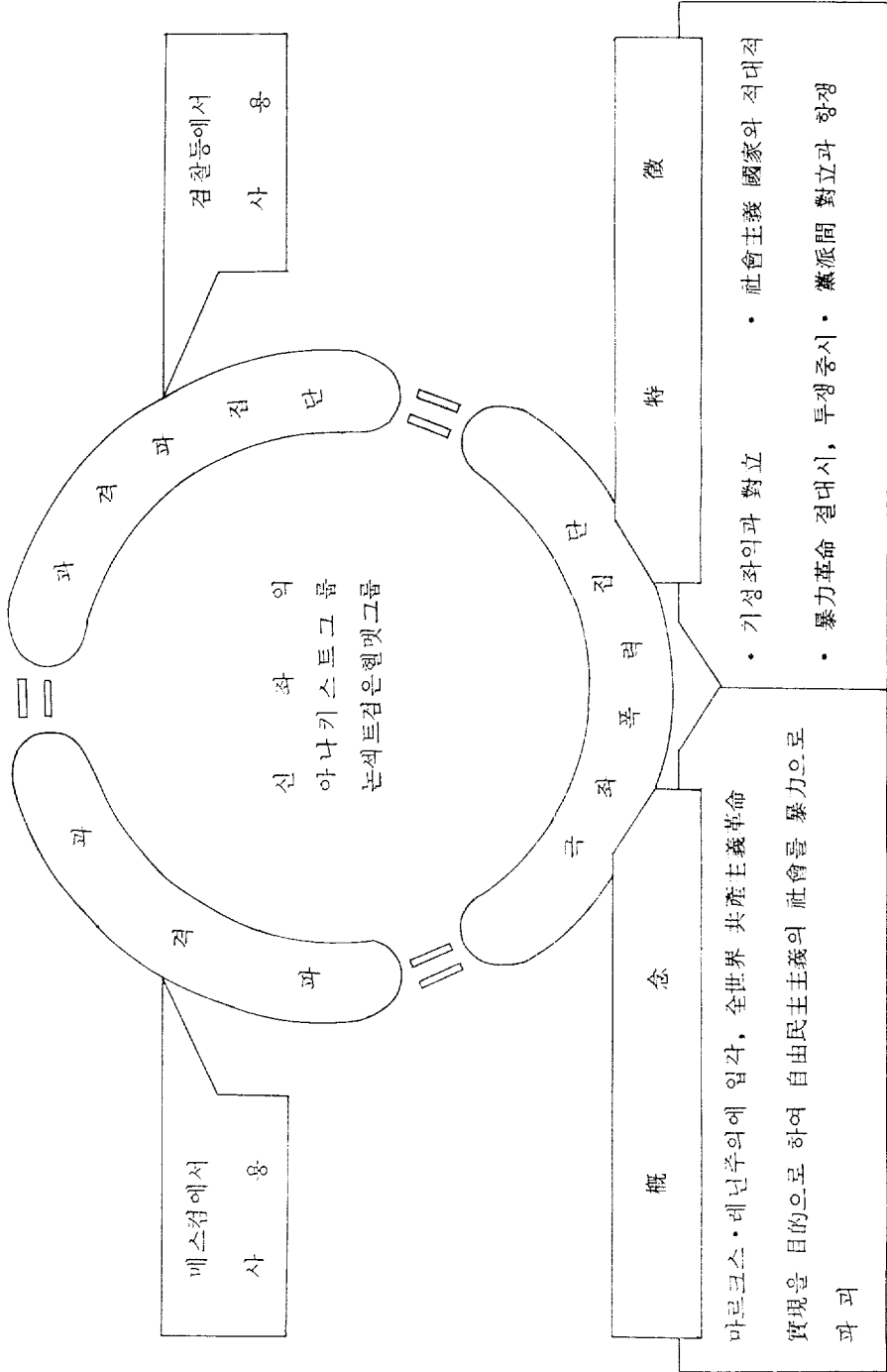
다. 集團의 規模

極左暴力集團은 ①신좌익 5 그룹(流)·22 섹트(派) ②아나키스트그룹³⁰⁾ ③논섹

29) 田代則春, 「最近における過激派集團の實體とその動向」, 『警察公論』(1983년 2월호), p.21.

30) 일체의 權力이나 강제를 부정하고 개인이나 集團이 完全하게 자유로운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을 아나키즘(Anarchism: 무정부주의)이라 하며 ‘반권력’, ‘무지배’를 지침으로 하고 있다. 이 무정부주의의 조류를 대별하면 國家權力의 밖에서 自立生活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계몽 아나키스트와 국가권력을 폭력으로 打倒하고 무정부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행동적(급진적) 아나키스트로 區分되며 일본에서는 제 2차 세계대전 후 바로 급진적인 일본 아나키스트 연맹이나 일본 아나키스트 구락부가 組織되었으나 그후 尙소그룹이 이합집산을 반복하면서 現在에 이르고 있다.

(圖 5) 극좌폭력집단의 概念과 特徵



트 31) 검은 헬멧 그룹 32) 으로 대별되며 그 주류는 신좌익으로서 신좌익 5 그룹은 革共同系 33) ⊕共産同系 34) ⊕革勞協系 35) ⊕構造改革派系 36) ⊕反視中共派系 37) 이다.

- 31) 논섹트(Non-SECT)란 無黨派 學生을 말하며 논폴리·아파시(NON POLITICAL·APATHY : 비정치적 냉담)층, 논폴리·래디칼(NON POLITICAL·RADICAL : 비정치적 급진)층, 논섹트·래디칼(NON SECT·RADICAL : 무당파 급진)층을 포함한다. 1968~69년의 大學鬪爭時 기성의 섹트(派)를 주체로 하지 않고 논섹트, 논폴리의 一般學生이 결집하여 組織한 學生大衆運動組織인 全共闘(全學共闘會議의 약어) 운동시부터 쓰이기 시작하였다. 積極的으로 자신을 논섹트에 위치시켜 주체적·개인적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자하는 學生群을 지칭하며 대학내에서 인간회복, 학문과 연구의 자유, 자기존재의 자립 등은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고 섹트학생보다 더 격렬한 행동력을 과시하였다. 1971년경부터 검은 헬멧집단의 주체가 되어 치단상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 32) 검은 헬멧 그룹은 논섹트로 構成된 無黨派 急進性的의 소수 極左暴力集團이며 平均 10명내외로 組織되고 착용하는 헬멧의 모양 등이 다르더라도 목 검은 헬멧을 쓰고 있으므로 그런 명칭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 1960년대에 기성섹트의 분열과 대립의 반복속에서 組織에 대하는 것을 혐오하는 자들이 모여 적은 수의 그룹을 형성하여 생기게 되었으며 思想的으로도 다양하다. 1971년의 「4·28 오키나와 투쟁」 이후 학원이나 가쿠투쟁에서 주역을 담당하였으며 最近 기성섹트의 투쟁방침에 반발하면서 일부는 操彈鬪爭에 의한 테러·게리라 투쟁을 감행하는 등 범법성이 극히 강한 집단이다. 1971년의 「경시청 追分派出所 크리스마스 추리 폭탄사건」 등을 일으켰던 田 그룹이나 1974년부터 1975년에 걸쳐 「기업연쇄폭파사건」을 일으켰던 東아시아 反日武裝戰線도 검은 헬멧 그룹에 속한다.
- 33) 革共同系는 3섹트(派)이며 中核派가 약 5,000명, 革마르파가 약 4,000명, 제4인터 일본지부가 약 2,000명이다.
- 34) 共産同系는 革共同系와 더불어 過激鬪爭의 주역이며 모두 12섹트(派)이다. 戰旗·荒派(약 700명) 및 戰旗·兩川派(약 400명)는 成田鬪爭 등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도 게리라사건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
- 35) 革勞協系는 現在 革勞協 狹間派와 同反狹間派로 분열한 상태에서 힘간과를 중심으로 成田鬪爭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총세력은 약 2,500

2. 極左暴力集團의 變遷過程

일본 極左暴力集團의 變遷過程은 일본 학생운동의 변천과정이기도 하다.

일본경찰청은 그 변천과정을 ①초창기(1957 ~ 1966), ②가두무장투쟁기(1967 ~ 1971), ③고립·침묵화기(1971 ~ 1979), ④테러·게릴라의 흥프·교묘화기(1980 이후)로 나누고 있는바 이하 일본경찰청에서 편찬한 소화 63년판 경찰백서 38)에 의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가. 초창기(1957 ~ 1966)

(1) 일본공산당과의 결별 및 極左暴力集團의 發生

(개) 革共同

1955년 日本共産黨 第6全協에서의 暴力革命路線의 평화로선으로의 전술전환, 1956년 소련공산당 제 20회 당대회에서의 스탈린비판과 미소평화광준로선의 제창에 따라 그 동안 일본공산당의 軍事方針을 充實히 지켜 화염병투쟁 등의 전면에서 섰던 당원이나 그 동조자 간에서는 절대무오류의 존재였던 黨에 대한 不信과 더불어

명이다.

36) 구조개혁과는 「70년투쟁」에서는 過激한 活動을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그 勢力도 약해졌다. 그 중 약 500명의 共産黨이 成田闘爭 등 게릴라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

37) 親中共派는 과출소속격사건이나 이른바 연합적군사건을 일으킨 日共革命的 左派神奈川縣 委員會 등이 있으나 현재에는 과격한 노선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있다.

38) 이 警察白書는 「테러·게릴라의 근절을 목표로 하여」(“テロ, ゲリラ”の根絶を目指して)라는 부제를 달고 있으며 ‘極左暴力集團 등의 동향과 경찰의 대응’을 특집으로 꾸렸다. 極左暴力集團의 연혁과 동향에 대하여는 유일하게 田代則春氏가 저술한 「日本共産黨의 變遷과 過激派集團의 理論과 實踐」(日本共産黨の變遷と過激派集團の理論と實踐)이라는 單行本이 1985년에 立花書房에 의하여 出刊되어 이 두 책을 종합·분석하면 보다 체계화되고 정확한 極左暴力集團의 모습이 파악되리라고 본다. 본고의 이 부분은 일본경찰백서를 요약한 것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회의가 생겨 스탈린과 대립하였던 트로츠키³⁹⁾를 再評價하는 기운이 일어났다.

또한 日本共産黨을 유일한 전위당으로 하였던 총리의 생각을 근거로부터 뒤집어 북자의 전위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운동론이 주장되었다.

이리하여 1957년 1월 트로츠키즘을 신봉하는 前 日本共産黨員들이 일본 최초의 트로츠키스트조직인 일본트로츠키스트연맹을 결성하고 1957년 12월에는 革共同으로 개칭하고 學生運動에의 침투를 기도하였다.

(나) 共産同

한편 全學連(全日本 大學自治會 總聯合의 略稱)⁴⁰⁾은 1948년 결성이래로 일본공산당의 지도·영향하에 있었으나 위와 같은 와중에서 일본공산당의 노선변경 등에 불만을 품은 黨員들이 주류파의 위치를 점하였기 때문에 점차 일본공산당 중앙과 대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58년 6월에는 日本共産黨中央이 소집한 全學連大會 대의원그룹회의에서 전학련 주류파 당원들이 회의를 주도하여 黨中央委員 全員の 파당을 요구하는 등 결정적으로 대립하게 되었다.⁴¹⁾

이 事件을 계기로 多數의 전학련 주류파 당원들이 일본공산당으로부터 제명되거나 스스로 脫黨하기에 이르렀고 이들은 부분적으로는 트로츠키즘을 높이 評價하던

39) 레온 트로츠키(1879 ~ 1940)는 레닌과 더불어 러시아革命을 指導했으나 레닌 사후 스탈린과의 權力鬭爭에 敗北하여 국외추방을 당하였으며 멕시코에서 스탈린의 하수인들에 의하여 暗殺되었다.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 혁명론에 대하여 영구혁명(세계혁명)론을 주장하였다.

40) 1948년 9월 ‘學文의 自由’, ‘教育環境의 改善’ 등을 목적으로 일본공산당의 지도로 결성되었으나 1958년 6월 1일 ‘전학련 그룹사건’ 이후 분열을 반복하여 현재에는 ① 日本共産黨이 지도하는 日共系 전학련 ② 革命的 공산주의자동맹 전국위원회(革共同前進派)가 指導하는 中核派 全學連 ③ 일본혁명적 공산주의자동맹 혁명적 마르크스주의파(革共同 마르크派)가 지도하는 革마르크派系 전학련 ④ 혁명적 노동자협회(革勞協)가 지도하는 反帝學評系 전학련이 있다.

서도 革共同에 參加하지 아니하고 1958년 12월 독자적으로 共產同을 결성하였다.

(대) 構造改革派

일본공산당의 제 6 전협후 신강령의 작성을 둘러싼 격렬한 論爭이 계속되었으며 1961년 7월 構造改革路線⁴²⁾을 주장하는 소수파가 黨을 이탈하여 신조직을 결성하였고 그 후 중·소 대립시 中國共產黨路線 의존적로선을 채택한 일본공산당 중앙의 방침에 반대하여 제명된 전 중앙위원들도 그 일부와 합류하여 신조직을 결성하였다.

이러한 組織은 당초에 構造改革路線을 채택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구조개혁파라 부르게 되었으며 1969년경부터 청년급진파의 대두에 의하여 過激路線으로 전환하였다.

(대) 親中共派

중국공산당 의존적로선을 채택한 日本共產黨도 1965년의 인도네시아공산당의 무장봉기와 정 부군에 의한 진압에 강한 衝擊을 받게 되었으며 그 후 월남전쟁의 격화와 중국에서의 文化大革命으로 대 소관계, 일본에서의 革命의 手段과 方法 등에 관하여 일본공산당과 중국공산당의 의견대립이 심화되었다.

그러던 중 1966년 봄 일본공산당(宮本顯治)과 중국공산당(毛澤東) 간의 회담이 결렬되자 日本共產黨은 中國共產黨과의 關係를 단절하고 자주독립 로선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 로선전환을 비판하여 제명된 전 일본공산당원들은 1966년 9월 이후 일본 각지에서 新組織을 結成하였으며 이들은 중국공산당이나 모택동사상을 지지하고 있어 親中共派라고 부르게 되었다.

(대) 革勞協

1960년 日本社會黨의 指導 下에 결성된 일본 社會主義青年同盟(社青同)에는 共

42) 구조개혁로선이란 이태리 공산당의 토리아티 서기장이 주창한 革命路線으로서 民主主義의 擴大, 경제의 민주화를 통하여 사회주의에의 길을 열어 나간다는 것이다.

産同系의 活動家가 ‘가입전술’ 43)에 기하여 다수 잠입하였으며 이들 活動家들이 점차 勢力을 擴充하여 1965년에는 社青同 解放派를 組織하여 共產同으로부터 독립하고 1969년에는 革勞協을 結成하였다.

(2) 學生運動의 주도권 장악

가) 극좌폭력집단의 전학련 장악

極左暴力集團은 그 결성과 더불어 학생운동에 침투하여 勢力을 확대함으로서 1958년에는 全學連의 주도권을 장악하였고 極左暴力集團에 의하여 지도된 全學連은 사회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한 투쟁을 중점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實力行動을 중시하는 共產同이 주도권을 잡은 1959년부터는 다음해로 예정된 日美安全保障條約의 개정을 ‘본격적인 군사동맹으로의 改變’이라고 규정하여 그 반대투쟁을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이며 사회주의혁명에의 돌파구를 여는 것이다”고 하여 강력하게 전개하였다.

나) 안보투쟁에 의한 일반학생의 동원

‘60년안보투쟁’은 일미안전보장조약의 존속을 반대하는 日本社會黨 및 日本共產黨과 總評 44) 등이 중심이 되어 공동투쟁조직인 ‘안보조약 개정저지 국민회의’ 하에서 1959년 4월부터 1960년 10월까지 약 1년 7개월간에 걸쳐 연인원 약 464만명이 동원되어 23차의 전국통일행동을 전개하였다.

이 鬭爭에서 全學連은 혁명투쟁의 주장에는 찬동하지 않는 다수의 일반학생들을 ‘반안보’에 결집시켜 過激한 行動을 반복하였다.

즉 1959년 11월 27일 전학련부대가 국회진정대모의 선두에 서서 ‘국회난입사건’을 일으켰고 1960년 1월 16일 학생 약 700명이 岸수상 등 개정 안보조약

43) 가입전술(加入戰術)이란 트로츠키스트가 자신의 組織을 만듦에 있어서 처음부터 하나의 黨派를 표방하여도 많은 동지를 결집시킬 수 없는 경우에 우선 다른 정당, 대중단체에 침투하여 勢力을 점차 확대하여 그 조직을 장악한 다음 다시 그 組織에서 나와 獨立된 組織을 결성하는 전술이다.

44) 總評(일본 노동조합 총평회의의 약칭)은 同盟(전일본 노동총동맹의 약칭)과 더불어 일본 노동운동의 중심세력이다.

조인전권대표단의 방미를 저지하기 위한 羽田공항로비 전거사건을 일으켰으며 이러한 過激한 行動으로 여론의 혹독한 비판을 받고 전학련 내부에서도 비판이 대두되어 전학련은 분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주류파인 共產同系의 전학련은 過激한 行動을 계속하여 국회 청원대모(국회난입 미수) 사건을 1960년 5월 20일 및 6월 3일에 일으키는 외에 개정안보조약 비준승인성립과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 방일을 눈앞에 둔 1960년 6월 15일을 '안보 결전의 날'로 하여 국회구내에 난입하여 女子大學生 한 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대) 안보투쟁의 진전과 極左暴力集團의 분열

'60년 안보투쟁'은 1960년 6월 23일 비준서 교환 완료와 淸수상의 사의표명에 따라 그 목표를 상실하여 급속히 진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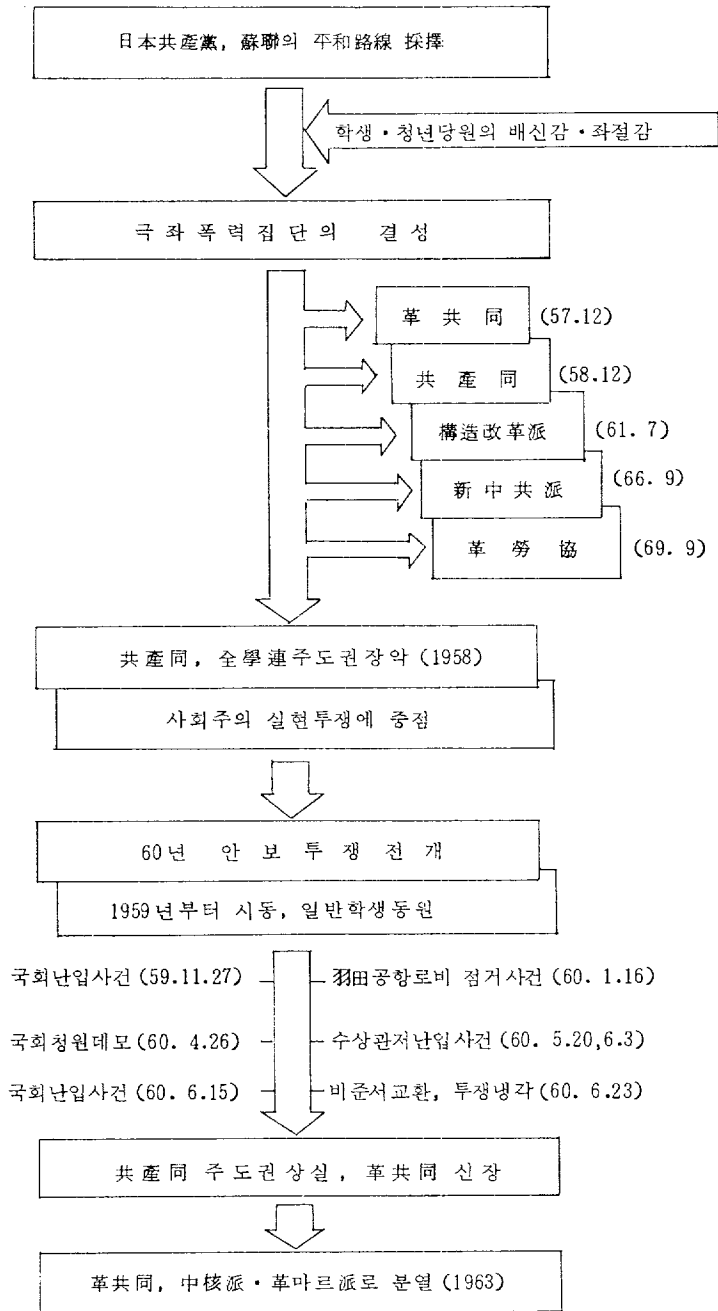
이로 인하여 全學連 주류파를 형성하고 있던 共產同은 指導責任을 둘러싸고 분열하여 점차 全學連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한편 革共同은 共產同의 유력한 活動家들을 다수 흡수하여 勢力을 신장하였으나 1963년 투쟁로선과 관련한 의견대립 등으로 中核派⁴⁵⁾와 革마르派⁴⁶⁾로 분열하였다.

주 45) 中核派는 혁명적 공산주의자동맹 전국위원회(革共同前進派) 및 그 산하의 일본 마르크스주의 학생동맹 中核派(마르學同 中核派)의 총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반제국주의·반스타린주의'를 기본노선으로 하는 트로츠키스트 革命集團이다. 極左暴力集團중 최대세력이며 기관誌는 '무장', 기관紙는 '진진'이다.

46) 革마르派는 일본혁명적 공산주의자동맹 혁명적 마르크스주의파(革共同 革마르派) 및 그 산하의 일본 마르크스주의자 학생동맹 혁명적 마르크스주의파(마르學同 革마르派)의 총칭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中核派, 革勞協과 더불어 3대 極左暴力集團을 형성하고 있으며 기관誌는 '희망', 기관紙는 '공산주의자 동맹'이다.

(圖 7) 초창기 (1957 ~ 1966) 상황



나. 가두무장투쟁기(1967 ~ 1971)

(1) 투쟁의 과격화

(가) 전학련의 재조직과 스튜던트 파워의 影響

極左暴力集團은 스스로를 革命的 기폭제임을 자임하여 1960년대에는 1960년 일미안보조약 개정을 타겟으로 하여 ‘60년안보투쟁’을 전개한 후 분열과 혼미를 거듭하다가 1966년 12월 舊共產同, 中核派, 全靑同 解放派(후에 革勞協으로됨)를 중심으로 三派系 全學連을 組織하여 학생운동의 중심적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이어 세계적인 스튜던트 파워⁴⁷⁾와 베트남戰爭을 둘러싼 반전·반미기운, 학원분쟁 과정에서 發生한 반체제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배경으로 일반학생과 靑年勤勞者를 동원하여 장기간의 過激한 ‘70년투쟁’을 전개하였다.

(나) 集團武裝鬪爭化한 ‘70년투쟁’

① 주요사건

3과계 全學連은 1967년 10월 ‘총리의 베트남 방문저지가 70년투쟁의 개막’이라는 기치아래 ‘제1차 羽田事件’, 1967년 11월에는 수상의 방미에 反對하는 ‘제2차 羽田事件’을 일으켰다.

제 1 차 羽田事件

<경 과>

- 1967년 10월 8일 佐藤수상의 월남 방문을 저지하기 위하여 極左暴力集團 약 2,500 명이 아침 일찍부터 羽田空港亂入을 기도.

47) 1968년부터 1969년에 이르는 기간에 프랑스의 5월위기를 초래하였던 파리大學生의 학제개혁 參加要求鬪爭, 미국 캘리포니아大學을 중심으로한 反戰·反軍·反人種差別 鬪爭을 비롯하여 영국, 이태리, 중남미 제국에서 학생들은 격렬한 暴力鬪爭을 전개하여 치안을 위태롭게 하였다.

- 경비중인 경찰부대를 보도블럭을 깨뜨려 던지거나 곤봉, 각목을 휘두르며 공격하여 警察官 840 명, 一般人 5 명이 중경상
- 警察車輛 7 대 방화, 一般車輛 42 대를 破壞
- 특히 탈취한 警察車輛으로 공항돌입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1명 누살
- 東京警視廳은 당일 學生 多數를 포함한 58 명을 공무집행방해죄, 흉기 준비집합죄 등을 적용하여 現行犯으로 체포

<특 징>

- 경찰부대에 대한 計劃的인 공격, 각목과 석괴 등 대량의 武器를 사용한 점에서 비약적으로 악질화
 - 투쟁흉기를 에스카레이트시킨 계기가 됨
 - 極左暴力集團이 70 년 투쟁의 주역이 됨으로서 조직사기를 高揚
- ※ 이후의 鬪爭에 있어서 상당한 影響을 끼쳐 鬪爭力 제고

1968 년에도 集團武裝鬪爭을 반복·확대하여 1968 년 1 월 미 核航空母艦 ‘엔터프라이즈 기항저지투쟁’, ‘미군王子야전병원 개설저지투쟁’, ‘10·8 羽田鬪爭 1 주년 全國統一行動’ 등을 일으켰으며 1968 년 10 월 21 일 ‘국제반전투쟁’에서는 전국 동시다발로 약 2 만명을 동원하여 武裝鬪爭을 전개하고 군중을 모으기가 가장 손쉬운 동경의 新宿驛을 택하여 ‘新宿騷擾事件’을 일으켰다.

新宿騷擾事件

<경 과>

- 1968년 10월 21일 국제반전의 날을 기하여 極左暴力集團 약 4,000명은 新宿驛周邊에 1만명이상의 군중을 집결시켜 驛 周邊을 장시간 점거하여 집회와 데모를 전개
- 나아가 역구내 및 선로에 난입하여 鐵道施設을 점거한 다음 전차의 의자, 철로침목을 뜯어내어 바리케이트를 구축하고 이에 방화
- 아울러 驛舍, 派出所, 電車 등을 통나무, 석괴 등으로 파괴

<진 압>

- 東京警視廳에서는 당일 총 770명의 학생을 체포하고 1952년의 ‘皇居 앞 메이데이소요사건’ 이래 16년만에 소요죄를 適用하여 364명을 검거하는 외에 公務執行妨害罪, 放火, 鐵道營業法違反 등으로 86명을 검거

※ 전국적으로는 총 1,012명의 學生을 체포하였으며 경찰관은 1,157명이 중경상

1969년에는 오끼나와 반환교섭을 위하여 수상이 방미하는 11월을 ‘안보決戰’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4.28 오끼나와 鬪爭’, ‘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 저지투쟁’, ‘10.21 國際反戰鬪爭’, ‘총리방미저지투쟁’ 등 집단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總理 訪美 沮止 鬪爭 (1969년 11월 13일 ~ 17일)

- 佐藤수상의 방미를 沮止하고자 東京의 연인원 3만 4,000명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연인원 7만 4,000명을 동원하여 反對鬪爭을 전개
- 특히 訪美 전날인 16일 동경에서는 약 1만 9,000명을 동원하여 羽田, 品川 등 각지에서 화염병, 폭발물, 쇠파이프, 각목 등을 사용한 ‘개리라’적 集團武裝鬪爭을 전개
- 警察官 487명, 一般人 65명이 부상을 당하는 외에 學生 1명이 사망
- 검거인원은 2,557명이었고 使用된 화염병은 1,200개, 압수된 화염병은 3,300여개에 이르렀다.

이어 ‘11월결전’시의 대량검거로 결성 이래 최대의 타격을 받아 당분간은 組織 제건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할 狀況에 처하고 메스컴에서 ‘狂氣의 沙汰……라고 批判하는 등 국민의 여론도 그러한 鬪爭을 지지하지 아니하여 당초에 鬪爭의 클라이막스로 예정하였던 1970년의 ‘6월 투쟁’도 武裝鬪爭을 할 수 없게 되었으나 1971년에 들어서서는 오끼나와 반환협정조인·비준시를 2차 클라이막스로 하여 일제히 武裝鬪爭을 展開하였다.

그 중에서도 中核派는 기관지에 ‘東京大暴動 鬪기선언’을 발표하여 國會審議가 절정에 達하였던 1971년 11월 14일 및 19일에 각각 약 6,000명을 동원하여 14일의 ‘澁谷暴動’에서는 화염병 투척으로 警察官이 死亡하고 19일의 ‘日比谷暴動’에서는 레스토랑을 放火, 전소시키는 등 무장투쟁을 전개하였으나 警察에 의하여 약 2,000명이 검거되자 極左暴力集團의 행동력도 약화되어 장기간의 ‘70년투쟁’은 종식되었다.

② 투쟁형태

‘70년투쟁’시 極左暴力集團은 복면에 헬멧을 쓰고 각목을 든 모습의 이른바 숲

學連스타일로 학원과 가두를 橫行하였으며 돌격대, 게바르트棒隊⁴⁸⁾ 특수공작대, 투석대, 별동대 등 軍團編成에 의한 武裝鬭爭을 상투수단으로 하였다.

또한 흥기에 있어서도 각목, 대나무장대, 석괴 외에 죽창, 철봉, 쇠파이프, 쇠조각, 화염병, 농약, 극약 등이 등장하였으며 極左暴力集團은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군중을 동원·결집시켜 利用하는 전술을 意識적으로 強化하였고 가두에서의 화염병 대량투적으로 鬭爭意識을 고양시켰다.

(2) 학원의 황폐화

가) 極左暴力集團의 학원분쟁 개입

1965년 1월 慶應大學의 授業料引上 反對鬭爭으로 시작된 학원분쟁은 1968년에는 377 개교 중 116 개교가, 1969년에는 379 개교 중 173 개교가 參加하였고 149 개교에서 바리케이트 봉쇄, 시설점거 등이 발생하였다.

학원분쟁은 본래 ‘학원의 민주화와 개혁’을 슬로건으로 하여 授業料 引上問題, 기숙사·학생회관문제 등 학원내의 個別的 要求事項을 실현할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1967년의 明大紛爭, 法大紛爭 등을 계기로 極左暴力集團이 학원분쟁을 革命鬭爭의 일환으로 위치시켜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함으로써 특히 1968년의 東大紛爭, 日大紛爭 이후 ‘70년대 결전을 향하여 대학을 흔들어라’는 것으로 그 목적을 일변시켜 전국에 과급되었으며 紛爭形態도 極左暴力集團의 혁명논리와 暴力至上主義에 입각한 지도 하에 게바르트봉쇄나 시설점거라고 하는 과격한 것으로 변하였다.

나) 논섹트, 논폴리의 學園紛爭 주도

학원분쟁은 그 대부분이 분쟁과정에서 기성의 섹트나 自治會의 테두리를 벗어나

48) 게바르트(ゲバルト: Gewalt <독일어>)란 힘(力), 권력, 폭력의 뜻이다. 1967년 제1차 羽田紛爭 이후 학생, 섹트의 實力鬭爭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약어로는 게바(ゲバ), 동사화하여 게바루(ゲバル)로도 사용한다. 특히 鬭爭時에 사용하는 각목을 게바봉(ゲバ棒)이라고 하며 게바르트 武裝은 맨손, 각목, 돌, 쇠파이프, 화염병, 수제폭탄, 총 등으로 에스카레이트 되어왔다.

自然發生的으로 생긴 共闘組織인 대학단위의 全共闘(全學共闘會議)⁴⁹⁾에 의하여 추진되었으며 그 가운데서 기성의 섹트에 속하지 않는 논섹트 레디칼즈라 불리는 새로운 極左暴力集團이 發生하였다.

이러한 전공투운동에 대하여 기성의 極左暴力集團 各派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浸透을 도모하여 점차 그 주도권을 장악하여 1969년 9월에는 革마르派를 제외한 주요 8과가 全國全共闘聯合을 결성하고 그 명칭하에서 논섹트 레디칼즈와 공동투쟁하였다.

다. ‘70년투쟁’의 출격거점 제공

極左暴力集團은 “학원분쟁을 학원바리케이트, 학원관리로서 투쟁할 것이 아니라 학원을 70년 안보·반계투쟁의 진지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함으로써 학원분쟁은 ‘70년투쟁’에 있어서 출격거점의 역할도 담당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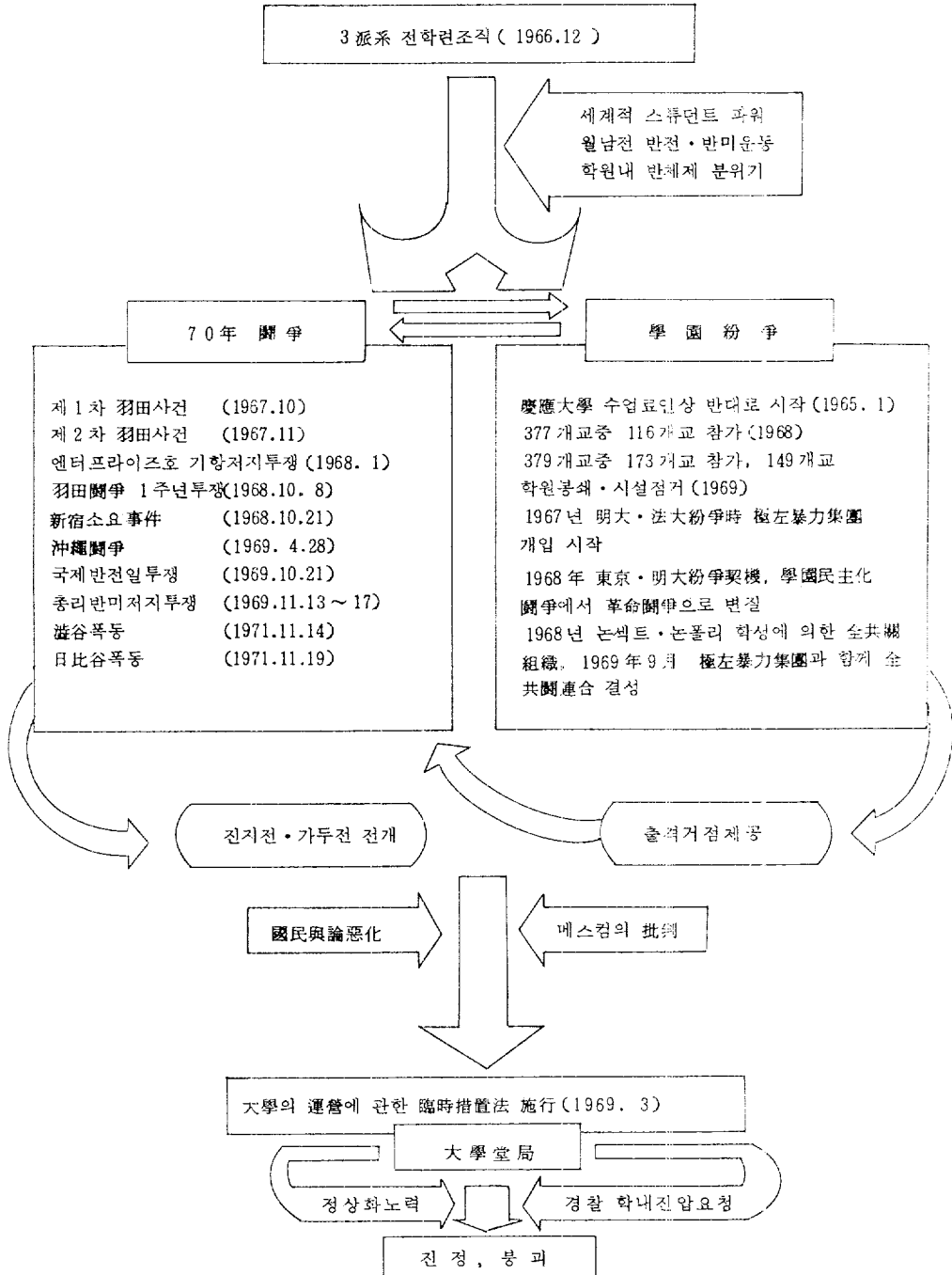
즉, 극좌폭력집단은 학원을 ‘城砦’화 하는 등 ‘陣地戰’을 펼치고 이를 출격거점이나 무기고로 하여 學外의 ‘街頭戰’을 展開하여 당시 분쟁대학의 교내에는 석괴, 화염병, 철봉, 죽장, 투석기, 염산, 유산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

‘陣地戰’과 ‘街頭戰’의 결합사례

- 1969년 1월 18일 및 19일 東京大學 安田講堂의 봉쇄해제에 대한 ‘安田城死守戰’ 전개
- 이에 呼應하여 神田駿河台一帶에서 과외 학생가 걸쳐라당에서 있었던 解放區鬪爭을 모방한 ‘걸쳐라당鬪爭’을 전개

49) 全共闘(全學共闘會議의 略語)는 기성섹트를 주체로 하지 않고 논섹트, 논폴리의 일반학생이 주체가 되었으며 본래 大學單位組織으로서 東大, 日大 全共闘가 유명하였다. 학생이나 대학사회에 있어서 倫理性을 추구한 것이 特色이다.

(圖 8) 가두무장투쟁기 (1967~1971) 상황



이와 같은 暴力的인 대학분쟁에 대한 國民의 고조된 비판속에서 1969년 8월 ‘大學의 運籌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어 대학당국도 학원정상화를 위한 대학 관리에 노력하고 警察에 대한 學內出動・鎮壓을 요청하는 등으로 인하여 학원분쟁은 급속히 진정되고 極左暴力集團의 성채도 차례로 붕괴되었다.

다. 고립・침묵 화기(1971 ~ 1979)

(1) 極左暴力集團의 사회적 고립

‘70년투쟁’은 학원분쟁과 맞물려 政治・社會의 現象에 불만을 품고 있던 많은 학생이나 노동자들을 대거 결집시켜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이러한 極左暴力集團에 의 동조자들도 화염병이나 폭탄까지 등장하는 鬪爭의 끝없는 에스카레이트에 위구심, 혁명을 부르짖는 極左暴力集團과의 의식의 갭, 거듭되는 파벌간 항쟁에 대한 실망 등으로 점차 이탈되고 여론의 批判 또한 고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警察의 강력한 단속으로 極左暴力集團은 1969년을 피크로 하여 점차 감소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게 되었다.

(2) 테러・게릴라 활동⁵⁰⁾에 의한 활로 개척

극좌폭력집단은 이와 같은 사회적고립과 街頭鬪爭의 급감속에서 투쟁의 後退에 대한 위기감과 초조감을 이용하여 보다 흉포한 鬪爭手段을 취하거나 ‘게릴라’ 활동, ‘내계바’⁵¹⁾를 專門으로 하는 非公開・軍事組織을 構成하였으나 이것이 오히려 고립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아울러 1971년경부터 成田鬪爭(新東京國際空港建設反對鬪爭)을 중점 투쟁과제로 하여 다양한 집단불법행위, 테러・게릴라활동을 전개하였다.

50) 테러와 게릴라의 구별은 일본의 경우 명확치 않으나 ‘테러’는 개인을 직접 대상으로 ‘게릴라’는 시설 등을 공격대상으로 하는 것을 지칭한다.

51) 內계바(內ゲバ)는 內部계 바르트(內部ゲバルト)의 뜻으로서 각 당파간이나 당파내에서 論理 또는 行動의 차이, 주도권 쟁탈 등에 따른 暴力, 實力行事を 말한다.

(개) 군사화로선의 전개

① 共産同 赤軍派의 결성과 혁명전쟁 추진

‘70년투쟁’의 일환인 1969년 4월 28일의 ‘4.28 오끼나와 鬪爭’에서 1,000명이 넘는 極左暴力集團의 간부가 破壞活動防止法에 의하여 대량검거되는 등 당초의 목적달성이 어려워지는 결과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共産同 내부에서는 革命路線, 특히 무장봉기의 격부 여부를 놓고 대립이 격화되어 ‘11월 무장봉기’를 주장하는 最左派가 1949년 9월 共産同 赤軍派를 결성하였다.

이 共産同 赤軍派는 결성직후부터 ‘大阪・東京 革命戰爭’을 내걸고 警察施設을 습격하거나 수상관저를 무장점검하고자 폭탄 등을 準備하여 軍事訓練을 하다가 失敗하여 조직원 다수가 검거되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나 共産同 赤軍派는 그 후에도 무장봉기계획을 고집하여 金融機關을 습격하여 자금을 만드는 외에 해외혁명거점의 건설을 목표로 1970년 3월 31일 ‘요도 號납치사건’을 일으켜 活動家들을 北韓으로 보냈으며 그 후 日本赤軍을 組織하고자 1971년 2월 重信房子 등을 레바논으로 출국시키기도 하였다.

② 連合赤軍의 組織과 武裝鬪爭 전개

한편 일본공산당 革命左派 神奈川縣委員會(京浜安保共闘)도 무장봉기보선을 채택하고 1969년 11월부터 1970년 9월 사이에 걸취한 다이내마이트를 使用하여 수회에 걸쳐 주일 미군기지를 습격하고 총기를 강탈하기 위하여 1970년 12월 18일에는 派出所를 습격하고 1971년 2월에는 총포상을 습격하여 兇총을 강탈하였다.

이와 같은 鬪爭過程에서 赤軍派와 京浜安保共闘派는 1971년 1월 盟友로서 共闘를 宣稱하고 1971년 7월에는 양파의 군사조직을 통합하여 連合赤軍을 조직하였으며 결성직 후부터 ‘大量 린치살인사건’, ‘아사마山莊事件’⁵²⁾을 일으켜 반년가

52) 1972년 2월 산악아지트로 이동중이던 連合赤軍 5명이 警察官에게 발견되자 長野縣 輕井澤에 있는 아사마山莊에서 인질을 테리그 대치하면서 10

량 존속되었다가 제멸되었다.

—大量린치殺人事件—

- 武裝訓練, 폭발물 제조, 경찰시설 습격준비차 산악아지트를 전전하던 중
- 1971년 말~1972년 초 사이에 群馬縣 산속에서 반항자, 도망우려자, 낙오자로 判斷되는 組織員을 로프로 목을 조르거나 등산용구로 찌르거나 묶어 얼게하는 등으로 12명을 殺害
- 證據를 인멸하기 위하여 全裸狀態로 산속에 묻어 유기

③ 中核派・革勞協・革마르派의 군사부문 창설

이와 같은 비공개・군사화로서는 점차 다른 섹트에도 浸透하여 1971년경부터 中核派 등도 組織의 비공개화를 도모하여 ‘테러・게릴라’ 活動 전문부대로서 군사부문을 창설한 움직임을 보였다.

먼저 中核派는 1972년 1월 1일자 기관지에 ‘인민혁명군・무장유격대의 건군’을 게재하고 그 임무를 “①게릴라적・빨치산적 武裝鬭爭을 담당하는 손이고 ②政治鬭爭의 내란적・무장적・혁명적 발전의 원조・촉진자이며 ③반혁명집단에 대항하는 무장군 쟁대이다”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革勞協은 1972년 10월 ‘프로레타리아 돌격대’를 등장시킨 후 ‘프로레타리아 통일전선전투단’으로 개칭하였으며 “대권력 게릴라전 공격과 프로레타리아혁명운동에 적대하는 제세력에 대한 군사적 대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革

일간에 걸쳐 총기, 폭발물 등으로 경찰부대와 충돌전을 벌였으나 전원 검거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일반인 1명이 사망하고 경찰관 2명이 순직하였으며 일반인 2명이 부상당하고 경찰관 2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마르派도 1973 년 초 ‘특별행동대’를 결성하였다.

(나) 爆彈鬭爭에의 광분

① 관심유도목적에서 살상목적으로 사용

‘70 년투쟁’에서 武装鬭爭路線을 일관하여 온 極左暴力集團은 1969 년에는 폭탄의 製造와 그 使用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가장 과격한 로선을 취하여 온 共產同 赤軍派, 中核派, 日本共產黨 革命左派 神奈川懸委員會 등은 1969 년 ‘10.21 국제반전투쟁’, ‘11.13 ~ 11.17 총리 망미저지투쟁’ 등에서 시작하여 1976 년에 이르기까지 폭탄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당시의 폭탄은 위력이 약하고 불발탄이 많이 나오는 등 기술적으로 유치하였고 그 使用目的도 爆發에 의하여 관심을 끌고자 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1971 년 6 월 共產同 赤軍派에 의한 ‘明治공원 폭탄투척사건’에서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明治公園 폭탄투척사건

- 1971 년 6 월 17 일 東京 明治公園에서 개최된 中核派, 제 4 인터 일본 지부 등의 ‘오끼나와 返還協定 조인반대투쟁’ 집회에 共產同 赤軍派가 잠입
- 경찰부대를 향하여 쇠파이프폭탄을 던져 일순간에 경찰관 37 명에게 중경상을 입힘

이후 極左暴力集團에 의한 폭탄사건이 다발하는 외에 使用目的도 대인공격적인 것으로 되었다. 또한 이 무렵부터 검은 헬멧 그룹이라 불리는 논색트集團도 폭탄투쟁에 가담하여 1971 년 12 월 18 일에는 소포폭탄으로 부인이 살해당한 ‘경시청 경무부장집 폭파살인사건’, 12 월 24 일에는 크리스마스 휴리를 위장한 폭탄사건’ 등 외에 62 건의 폭탄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해가 폭탄사건 제 1 차 절정기였으며 이후 일시 전정되었다.

② 폭탄의 대형 · 고성능화 무차별 공격

그러나 爆彈鬭爭은 1974 년 8 월 30 일 ‘三菱重工業빌딩 폭파사건’으로 다시 본격화 되었다.

三菱重工業빌딩 爆破事件

- 1974 년 8 월 30 일 백주에 검은 헬멧 그룹의 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 이 ‘제국주의자 = 植民地主義者를 처형한다’는 구실 하에
- 동경 마루노우치(丸の内)에 있는 三菱重工業빌딩 정면 현관앞에 2 개의 시한식 폭탄을 설치, 爆發시킴
- 行人 등 8 명이 사망하고 380 명이 중경상을 입음
- 1975 년 5 월 19 일 同 組織員 5 명 일제검거

※ 現在까지 최대의 피해를 발생시킨 爆彈事件으로 記錄되고 있음

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은 爆彈鬭爭의 선두에 섰었으며 爆彈製造方法 등을 기록한 ‘도시계릴라병사독본 VOL.1 腹腹時計’를 지하출판함으로써 極左暴力集團에 의한 爆彈鬭爭은 다시 고조되었으며 위력면 등에 있어서 대형화 · 고성능화 됨과 동시에 종래와는 달리 大衆鬭爭의 高揚이라는 客觀的 情勢와는 관계없이 또한 일반인에게도 무차별적으로 행하여졌다.

그 결과 1974 년과 75 년의 2 년간 爆彈事件은 37 건이 발생하여 432 명이 부상하였으나 이 기간에 32 명이 검거되고 공개 지명수배 등 수사를 강력히 전개한 결과 1979 년 10 월의 ‘제 2 차 하자마빌딩 공사사무소폭탄사건’을 마지막으로 전정되었다.

(대) 처참한 內계바의 반복

① 全學連 주도권쟁탈에서 비롯된 內계바

革命勢力 各派는 모두 自派의 혁명이론이나 전술방침만이 옳을 뿐이고 他派는 혁명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유해한 반혁명세력으로 간주한다.

內계바는 바로 이와 같은 견해에 근거하여 極左暴力集團 일방 또는 쌍방을 당사자로 한 黨派鬭爭이 폭력항쟁의 형태를 취한 것으로서 1961년경부터 全學連의 주도권쟁탈 등을 둘러싸고 極左暴力集團 相互間에 각목 등을 사용하여 集團亂鬭象을 반복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1968년경부터는 학원분쟁의 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하여 極左系 學生과 日本共產黨系 學生사이에서 다발하였다.

② 공동투쟁목표의 상실로 심화된 內계바

(가) 內계바 도식의 정착

학원분쟁과 '70년투쟁'의 고비를 넘긴 1970년부터 다시 極左暴力集團 相互間의 內계바가 增加하였다.

특히 中核派와 革마르派 사이에서는 中核派가 革마르派의 東京教育大生에게 린치를 가하여 사망케 한 사건과 11월 革마르派가 中核派의 투大生에게 린치를 가하여 사망케 한 사건을 계기로 항쟁이 격화되고 나아가 革勞協이 對 革마르派戰에 參加하기에 이르러 革마르派 對 中核派, 革마르派 對 革勞協이라는 도식이 정착하여 서로 보복을 의치게 되었다.

(나) 혁명수행의 의무로 정당화

이 時期에 內계바가 격화된 원인으로는 70년안보라고 하는 대목표를 위하여 서로의 대립감정을 抑制하였던 極左暴力集團 各과가 공통의 목표를 상실하자 그 對立이 한꺼번에 표면화된 점, 集團武裝鬭爭이 에스카레이트 되는 過程에서 流血을 수반하는 暴力抗爭에 무감각하여진 점 등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內계바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를 革命鬭爭으로 귀치시켜 내계바는 혁명달성에 불가피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崇高한 義務이며 상대방 섹트의 완전한 섬멸이 없이는 革命의 勝利는 없다는 것 등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1973년 1월 東京 豊島區에 소재한 찻집에서 革마르派가 中核派정치

국민을 습격 한 사건이래 특정 활동가의 살해나 재기불능을 목적으로 한 사건이 증가하는 個人테러의 양상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그 特徵으로는 ①非公開・軍事組織을 투입하여 습격대상의 동정을 사전에 철저히 調査한 다음 습격하는 등 犯行이 극히 計劃的인 점 ②使用하는 흉기가 쇠파이프, ฆ�루, 도끼, 쇠갈고리, 막대, 칼 등으로 에스카레이트 되었고 나아가 주요한 흉기인 쇠파이프를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신축식으로 개량하였고 보스톤 백 등에 넣어 숨기는 등 휴대방법도 교묘해진 점 ③상대방 活動家를 재기불능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머리를 비롯하여 발과 팔의 관절부를 공격목표로 한 事件이 增加한 점을 들 수 있다.

1974년부터 1975년까지 내게바는 정점에 達하여 革마르派가 ‘中核派書記長 殺人事件’을 일으키는 등 31명이 사망하고 1,150명이 부상당하였다.

—— 中核派書記長 殺人事件 ——

- 1975년 3월 14일 미명에 玉顯 川口市內의 아파트에 쇠파이프, 큰 도끼 등을 지닌 革마르派 수십명이 침입
- 취침 중인 中核派書記長의 머리 등을 구타하여 죽사
- 革마르派는 3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中核派 해체투쟁에 있어서 勝利를 最終的으로 確認” 했다는 등 ‘내게바정지선언’을 발표
- 이에 中核派는 革마르派에 대하여 무차별 보복을 선언하고 전면전쟁에 돌입

그 후 관련섹트는 내게바에 대비한 방위를 強化하고 내게바를 短期決戰에서 長期戰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組織整備에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1976년 이후 사건수는 감소경향을 보였으나 1977년에도 革마르派에 의한 ‘軍勞協書記長 殺人事件’이나 革勞協에 의한 ‘浦和市內 내게바 殺人事件’ 등이 發生하여 10명이 사망하는

등 그 흉포함은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浦和市內 내게바 殺人事件

- 1957년 4월 15일 革勞協組織員 10여명이 革마르派組織員 4명이 탄 승용차의 주행을 트럭으로 가로막음
- 동시에 승용차 뒷부분을 보통화물자동차로 추돌시킨 다음 승용차의 유리를 파괴
- 부서진 유리창으로 휘발유를 주입, 점화시켜 4명 전원을 소사시킴

(라) 무한투쟁의 成田鬭爭

① 住民運動에의 極左暴力集團 개입

극좌폭력집단은 1967년 이래 成田鬭爭을 일관되게 전개하였으며 특히 '70년 투쟁'의 종식 후에는 成田鬭爭을 모든 투쟁의 중심에 놓고 다양한 集團不法行爲나 暴力的破壞活動, 악질적인 테러·게릴라활동을 계속 일으켰다.

新東京國際空港 建設概要

- 1962년 11월 건설구상 후 1966년 7월 4일 成田市 三里塚를 중심으로 한 지구에 建設을 決定하였으나 成田市 및 芝山町 農民을 중심으로 반대운동 일어남
- 1966년 7월 20일 三里塚·芝山連合空港建設反對同盟을 결성하고 토지매수가 곤란하도록 한 坪運動을 전개하고 건설예정지 안에 '團結오두막집'(小屋)을 지어 투쟁의 심볼로 하여 반대운동을 高揚시키고 '무저항의 저항으로토지를 지킨다'는 방침이었음

- 1967년 9월 1일 반대동맹주최의 집회에 極左系의 全學連委員長 등이 參加하여 공동투쟁을 제의한 후 極左暴力集團이 주도, 폭력투쟁으로 변질
- 이른바 成田鬭爭으로 개항예정일을 1978년 3월 30일, 3월 36일로 연기한 후 5월 20일 개항

※ 반대동맹은 결성당시 약 1,500호가 加盟하여 상당한 동원력이 있었으나 條件附鬭爭派로의 이행, 매수승락자의 이전이나 세대교체 등으로 동원력이 점차 감소하였으며 개항 후에는 급속히 쇠퇴하였고 鬭爭方向과 관련한 내부대립이 심화되어 1983년 3월 8일 化原事務局長派와 熱田行動隊長派로 분열

당시 월남전쟁이 격화되고 안보조약 개정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반전투쟁을 강화하고 있던 極左暴力集團은 新東京國際空港을 ‘일체의 해외침략기지’, ‘군사공항’ 등으로 認識하여 建設反對鬭爭을 “現地農民的 私活鬭爭만이 아닌, 일미안보동맹 분쇄투쟁과 관련된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투쟁” 등으로 위치시켜 成田鬭爭에 參加한 다음 집회에의 參加, 농민원조 등을 통하여 반대동맹과 극좌폭력집단 간의 공동투쟁관계를 강화하고 1968년에는 中核派를 비롯한 각파가 현지에 ‘단결오두막집’을 짓고 상주하는 투쟁으로 발전시켰다.

② 일본혁명의 중심과제화

“제국주의 타도 이외에 투쟁을 지탱하는 것은 없다”는 極左暴力集團의 개입에 의하여 成田鬭爭은 점차 에스카레이트 되었고 현지에의 동원을 강력히 추진함과 더불어 헬멧, 각목, 석괴, 화염병 등으로 武裝하고 集團武裝鬭爭을 전개하는 등 투쟁전술을 흉포화시켰다.

그리하여 1971년 9월 16일부터 20일까지의 활주로용지내 단결오두막집 3개소 등에 대한 제 2차 대집행시 연인원 약 1만 5,000명을 동원하여 화염병 등을 사용한 격렬한 반대투쟁을 하였고 9월 16일에는 경비중의 기동대를 습격하여 경찰

관 3명을 순직케 했다.

그 후에도 建設중인 공항에 화염차를 돌입시키거나 경비중의 기동대에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폭거를 반복하였고 1977년 5월 9일에는 芝山町 長老前派出所를 습격하여 경찰관 1인이 순직케 하였다.

개항예정일을 목전에 둔 1978년 3월 26일에는 極左暴力集團 약 6,000명을 포함한 약 1만명이 成田에 집결하여 개항저지투쟁을 전개하였고 특히 계 4인터 일본지부를 중심으로 한 약 300명이 개조트럭과 화염차를 사용하여 공항내 들진을 기도함과 더불어 별동대 약 15명이 지하배수구를 통하여 공항구내에 잠입, 관저탑에 난입하여 기기를 파괴하는 등 상해를 벗어난 게릴라활동으로 개항을 연기시키기에 이르렀다.

1978년 5월 30일 개항 후에도 成田鬪爭을 日本革命運動推進의 중심적 과제로 하여 과격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1983년 3월 8일 반대동맹이 北原事務局長派와 熱田行動隊長派로 분열한 뒤에도 中核派와 革勞協 狹間派 등이 北原派를, 계 4인터 일본지부와 戰旗·荒派 등이 熱田派를 각각 지원하면서 양자가 상호정쟁속에서 투쟁을 해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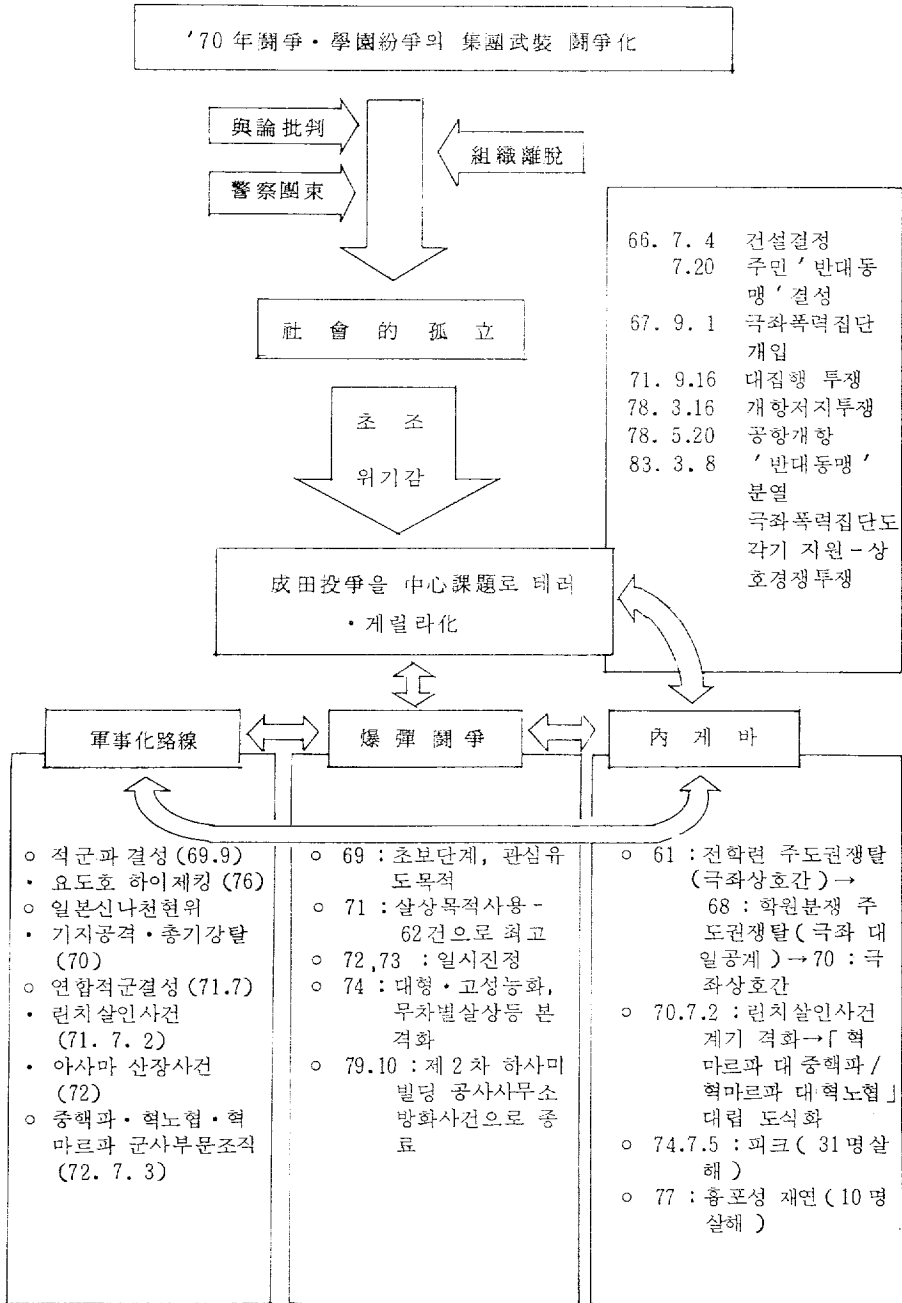
라. 테러·게릴라의 흥포·교묘화기(1980년 이후)

1971년경부터 極左暴力集團은 集團武裝鬪爭이서 테러·게릴라活動을 주로 하는 전술로 전환하였으나 테러·게릴라를 선도하는 폭탄투쟁그룹의 권이은 검거와 新東京國際空港의 개항 등으로 투쟁중점을 상실하는 등 1979년경부터는 감소되고 있다.

게릴라사건의 발생건수를 보면 1978년 128건, 1979년 60건, 1980년 23건으로 감소하였고 폭탄사건도 1980년부터 1984년까지의 5년간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 現象은 결코 極左暴力集團의 散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極左暴力集團은 그 동안 組織과 體制의 整備, 재편, 세력확대를 우선한 장기전망에 입각하여 비공개·군사조직의 강화와 신무기의 개발에 힘을 쏟아 왔던 것이다.

(圖 9) 고립 · 침에 화기 (1971 ~ 1979) 상황



이와 같은 期間이 경과한 후 中核派를 비롯한 極左暴力集團은 1984년부터 다시 활동을 활발히 하여 다수의 새로운 테러·계렬라활동을 일으키고 있으며 1985년에는 폭탄투쟁을 재개하고 1985년 10월에는 成田鬭爭에서 화염병 등을 사용한 集團武裝鬭爭을 재개하는 등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圖 10) 테러·게릴라의 흉포·교묘화기 (1980年以後) 狀況

